

Ⅲ. 거진읍 연혁과 리별현황

1. 거진읍 연혁과 리별현황

1953년 고성군 오대면을 거진면으로 개칭하였는데 1945년 8.15해방후 38선 이북으로 북한치하에 편입 됐다.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행정권이 이양 됐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거 거진읍으로 승격됐다.

1981년 7월 1일 강원도 규칙 제197호에 의거 법정리 15개리에서 17개로 조정했으며, 행정리 26개리를 28개리로 구역을 개편했다. 개편내용은 지적공부 및 호적부의 봉평리(蓬坪里)를



거진읍사무소 전경

봉평리와 자산리(慈山里)로, 초계리(草溪里)를 초계리와 오정리(梧亭里)로 각각 조정했다.

거진읍은 152개 새마을반을 가지고 있으며 총면적은 76.75㎢이다.

동해안 최북단의 전진항구를 갖고 있는 거진항의 내항면적은 130㎢이며 방파제의 길이는 1,243m 이다. 주어종은 명태, 오징어로 1996년 어획고는 1백70억원에 달하고 있다.

화진포를 접하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개발여지가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역 대 읍 · 면 장 명 단<수복이후>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南益鉉	1954. 2. 17	1956. 12. 10	面 長
2	金雲星	1957. 1. 24	1960. 6. 9	"
3	高鳳雙	1960. 6. 10	1961. 6. 22	"
4	裴明憲	1961. 6. 30	1961. 9. 29	"
5	尹鶴奎	1961. 10. 31	1962. 3. 16	"
6	洪正基	1962. 3. 17	1963. 2. 23	"
7	尹富源	1963. 2. 24	1965. 3. 10	"
8	張一星	1965. 3. 11	1968. 5. 15	"
9	南正鉉	1968. 5. 16	1970. 5. 4	"
10	池允福	1970. 5. 5	1972. 12. 1	"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1	權五鎭	1973. 1. 1	1973. 6.30	面長
12	金元錫	1973. 7. 1	1975.12.31	邑長(1973.7.1 음승직)
13	金鎭沅	1976. 1. 1	1980. 3.24	"
14	黃甲龍	1980. 3.25	1981.12. 2	"
15	李鎭健	1981.12.21	1987. 1.26	"
16	李錫範	1987. 1.27	1987. 3. 4	"
17	尹鍾秀	1987. 3. 5	1993. 6.21	"
18	崔祥鳳	1987. 6.22	1998. 3.31	"
19	南基柱	1998. 4. 1	현재	"

거진읍 마을명칭 변천표

읍 면 별		리 명
~1914년까지	현재 및 8.15해방시	
大堡面		石門, 沙溪(草溪), 玉洞(漆洞), 大堡, 竹泡, 浦南, 松湖, (松馬直), 盤岩(回津) (8)
梧岾面		巨吞津(巨津), 水外, 冷泉, 上巨吞(松江), 花浦, 外坪, 山北, 蓬湖, 月安, 松亭, 慈山, 長坪, 次洞, 獐項, 龍湖, 源塘
	巨津面	巨津, 慈山, 蓬坪(前蓬坪里 일원, 慈山부락 제외), 花浦, 源塘, 松亭, 山北, 龍下, 松江, 冷泉, 石門, 草溪(前草溪里 일원, 梧亭部落 제외), 大堡里, 松竹, 盤岩, 松浦, 梧亭, (前草溪, 梧亭部落)
	巨津邑	巨津1~11, 慈山, 蓬坪, 花浦, 源塘, 松亭, 龍下, 山北, 松江, 石門, 草溪, 梧亭, 大堡1~2, 松竹, 盤岩, 松浦1~2, (28) 冷泉里 주민 미거주마을 제외

◆ 28개 행정리별 현황 ◆

◎ 거진리(巨津里)

△ 위치 : 동쪽에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자산리와 봉평리, 북쪽에는 화포리가 위치



거진항포구 전경

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송포리와 인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약 500년전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중 이곳에 들렀다가 산세를 훑어보니 큰 '거(巨)'자와 같은 형국이며 거부장자(巨富長者)가 붙어날 것이라고 하였기에 거진리(巨津里)라 부르게 되었다.

고기(古記)에는 거탄정리(巨呑津里)라 하였으며, 1915년 행정구역폐합으

로 수외리(水外里)가 거진리(巨津里)에 편입되었는데 구 수외리(현 거진10,11리) 앞에 있는 자산천이 바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양분(兩分)되어 이부락 앞에서부터 해안 안쪽에 있는 원리의 국도 옆을 따라서 거진1리 선착장까지 약 1,000m를 길게 돌아서(우회) 흘렀기에 수외리(水廻里)라고도 불렸다. 옛부터 자산천이 두갈래였던 것을 곧 바로 바다로 흐르게 고친 후로는 넓은 하천부지와 해안매립 부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마을이 생겼다.

거진리는 1922년부터는 오대면 소재지, 1940년부터는 거진면 소재지로 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부터는 거진읍 소재지로 되었다. 1940년대까지는 원산, 무산간 여객선의 기항지였으며, 1925년부터 1945년까지는 동해북부선(철로)의 거진역이 있었으므로 농산물과 해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최근 관광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화진포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54년 9월 1일 수복과 동시에 거진리가 거진1,2리로 구분 되었다. 1959년 3월 19일 인구증가로 거진3리로, 1960년 12월에 또다시 거진5리로 점차 확장 구분 하였으며, 1971년 1월 1일 빠른 속도의 인구증가로 6,7,8리로 확장 구분되었고, 1973년 9월 거진 9리에서 거진10리로 구분, 1981년 7월 1일 거진10리에서 거진 11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1980년 소도읍가꾸기로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시장중심의 살판이 신선도로변으로 전이(轉移)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주소득원인 어업이 계속 불황을 거듭하면서 인구의 도시유출이 심해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거진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6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48명, 여자 298명으로 모두 546명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윤씨가 37가구,李씨가 26가구,朴씨가 13가구,張씨가 12가구,鄭씨가 7가구,崔씨가 6가구,林씨가 5가구, 기타 62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151가구, 제주도 5가구, 경남 2가구, 서울 5가구, 충북 1가구, 전북 1가구, 전남 1가구, 경북 1가구, 충남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160가구, 기타 8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17척, 1톤이상 5톤이하가 19척, 6톤이상 10톤미만이 8척, 10톤이상인 9척으로 대부분 소형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64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162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168대, 냉장고가 160대, 자가용이 18대의외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취사와 난방은 중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6월 총사업비 50만원을 들여 50㎡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근해어업은 주로 명태와 오징어, 문어, 참어 등을 어획하고 있으나 최근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21가구, 기독교가 20가구, 기타 10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4년 11월 마을에 옹벽 및 암거 18m등을 가설했으며, 같은해 마을안길 70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2년 11월에 8백24만원을 들여 하수도 96m를 설치하고 안길포장 75m, 옹벽 10m를 설치했고, 1995년 2월 8천6백50만원을 들여 화진포~물나드리간 도로 4.3km의 개설공사에 착수했고 8월에 2억6천1백만원의 들여 도로확포장 608m, 파제형 옹벽 180m를 설치했다. 1995년 4월 8백만원의 들여 재해위험지구의 계단 및 하수도 32m를 설치했으며, 10월에 3천만원의 들여 샘터진입로 120m확장, 옹벽 56m축조, 하수관 120m설치등을 정비했다. 1996년 4월에 7백만원의 들여 옹벽 및 하수도 45m를 설치하고 8월에 5백만원의 들여 성황당을 보수했으며, 9월에 4천만원의 들여 옹벽 65m를 축조했다.

1996년 11월에 4백만원의 들여 진입로 11m를 확포장했으며, 또 1996년 4월 사업비 3천1백만원의 들여 재해위험지역 옹벽 35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어신제(성황당치성제)라 부르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3월 초순과 9월중순에 등대밑 성황당 및 어판장에서 행하고 있다. 수십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으로 5.6명 정도의 무녀들을 동원하여 3~4일씩 당굿을 하면서 풍어제를 올려 왔으나 근래에는 무녀 1명으

로 봄, 가을에 지성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항구내에서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시에는 무정을 얹는다 하여 무녀들을 동원 3~4일씩 큰굿을 하기도 한다. 의식절차로는 도가집을 선정하고 도가집으로 하여금 택일을 하게 하고 택일이 선정되면 선정된 3일전부터 도가집에 금줄을 치며 성황당에 온갖 제물을 차려 놓고 헌관으로부터 축을 낭독하게 하며 축문이 끝난 뒤 무녀로부터 질을 올리면서 제문을 낭독하여 제를 올리며 이것이 끝나면 각 선주 앞으로 소지를 올리는 식으로 제를 마친다.

주사(主祀)는 여성황으로서 아득한 옛날 바다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죽은 남편을 언덕 위에서 기다리다 죽은 젊은 여인의 외로운 혼을 제사하는 것이 마을 공동의 어신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어신제는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이 현재 거진읍 거진1리에 소재한 성황당으로서 문당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밤중까지 연3일간 거행되는 제사에는 별신무와 강신무가 있으며 이들이 펼치는 춤과 노래는 문화시설이 적은 이 마을에서는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제사는 제주(祭主)가 주관하는 제례와 무당들이 성황신과 용왕신을 모시는 달맞이 굿을 가장 중요한 성황신을 함께 모셔다가 그들을 위로하는 순서가 된다.

△ 마을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설. 해를 새로 맞이하므로 일가 어른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조상을 추모하여 차례를 올리고 몸을 단정하며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근래에는 직업으로 인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친지들이 고향으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연례직으로 벌어지고 있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쫄쫄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울,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정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와 석물(石物)를 새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퇴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래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단단, 섯마, 육백, 나이뽕뽕, 고스름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새시풍속은 거진1리부터 거진11리까지 거의 비슷하다.

○ 거진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65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93명, 여자 301명으로 모두 594명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김씨가 45가구,李씨가 27가구,崔씨가 8가구,張씨가 6가구,鄭씨가 5가구,姜씨가 4가구,黃씨가 3가구, 기타 67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150가구, 경북 6가구, 경기도 3가구, 인천 2가구, 경남 2가구, 제주도 2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120가구, 상업이 11가구, 농업이 1가구, 기타 33가구 등으로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9척, 1톤이상 5톤이하가 14척, 6톤이상 10톤미만이 3척, 10톤이상이 15척으로 대부분 소형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64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157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160대, 냉장고가 160대, 자가용이 19대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6월 총사업비 50만원을 들여 23㎡ 규모의 아담한 스태브건물로 신축했다. 1985년도에는 명태 450톤, 멸치 150톤, 양미리 50톤, 잡어 2,000kg을 주된 어업소득을 올리기도 했으나 최근 어족자원이 크게 줄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20가구, 기독교가 19가구, 천주교가 2가구, 기타 15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마을입구에서 마을회관까지의 마

을안길 180m를 자부담 180만원과 절근 3톤, 시멘트 900포를 사용하여 포장했다.

1995년 5월에 사업비 1천7백98만원을 들여 보령골 하수도복개 및 포장 45m가 이루어졌고, 1996년 4월 사업비 7백20만원을 들여 웅곡식 하수도 50m를 설치했다.

1996년 6월 사업비 3천2백70만원을 들여 웅곡 30m와 4진, 계단 10m와 3진 등을 설치했다. 1996년 8월 사업비 5천3백60만원을 들여 시가지차도 316m를 확장했다.

1996년 9월 2천7백58만원을 들여 재해위험지구 석축 40m를 쌓았다.

○ 거진3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35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89명, 여자 415명으로 모두 804명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송씨가 62가구,李씨가 39가구,崔씨가 18가구,朴씨가 12가구,姜씨가 10가구,張씨가 9가구,韓씨가 6가구, 기타 79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14가구, 경남 8가구, 경북 6가구, 서울 3가구, 충남1가구, 경기도 1가구, 부산 1가구, 충북 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127가구, 상업이 23가구, 농업이 1가구, 기타 84가구 등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 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26척, 1톤이상 5톤이하가 22척, 6톤이상 10톤미만 11척, 10톤이상이 11척으로 대부분 소형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에 종하고 있으며, 최근 원양조업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18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매일 108회(10분당 1대)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230대, 냉장고가 228대, 자가용이 24대에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6월 총사업비 50만원을 들여 56㎡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거진앞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동해안의 황금어장으로 주로 명태와 오징어, 문어, 가자미, 꽁치, 참치 등을 어획하였으나 최근 어족자원이 크게 줄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39가구, 기독교가 28가구, 천주교가 8가구, 기타 3가구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6년부터 1978년의 3년간에 걸쳐 바울입구에서 바울회관까지의 바울안길 180m를 자부담 180만원과 철근 3톤, 시멘트 900포를 사용하여 포장했다.

1993년 9월 사업비 1백50만원을 들여 10만 바울안길 40m를 포장했다.

1996년 12월 사업비 1천9백76만원을 들여 진입로 375m를 깔끔히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서낭고사는 어른계 주관으로 매년 행해지며 3년에 한번씩 풍어제를 올렸다. 그러나 풍어제 및 고사에 들어가는 경비를 어민과 선주들이 부담해 오다가 불황이 계속되어 1991년에 굿을 한 뒤 중단된 실정이다. 서낭고사는 1월초와 9월초에 각각 봄치성, 가을치성으로 행사며 치성을 드리는 곳은 할아버지 서낭과 할머니 서낭, 고청(高廳)서낭 세곳에다 지낸다. 할아버지 서낭은 바다와 가까운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할머니 서낭은 할아버지 서낭과 사이가 안 좋아 갈라져 나왔다고 하며 초기에는 서낭당은 없고 나무에 창호지를 걸어 두어 서낭당임을 표시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서낭과는 맞은 편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고청서낭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대전 지역에 있으며 따로 낚을 받아 짐사와 무당이 새벽 5시에 올라가 고사를 지내고 돌아온다. 그곳에서 배 두그릇을 직접 지어 고청 서낭과 산신께 제물을 올리고 돌도 찜는다. 고청서낭의 모습은 아름답리 소나무가 두그루 부러져 있으며 부러진 지 오래임에도 그대로 살아 있는 듯하다고 한다. 고청서낭을 모실 때는 축은 읽지 않으며 쓰이는 제물은 백설기 시루를 하나 찌서 이를 '산시루'라 부르고 나뭇과 과일을 준비한다. 고사를 올릴 때는 선주들의 소지를 올리고 제물은 남김없이 먹고 창호지와 무명실을 엮어 나무 묶어 두고 내려온다.

△ **기타** : 마을 북쪽 끝짜기에는 거성초등학교가 있다.

○ 거진4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7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51명, 여자 461명으로 모두 912명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김씨가 40가구,李씨가 37가구,朴씨가 32가구,崔씨가 21가구,張씨가 12가구,趙씨가 15가구,劉씨가 8가구, 기타 108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47가구, 경북 8가구, 충남 1가구, 서울 4가구, 경기도 4가구, 전남 3가구, 경남 5가구, 전북 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175가구, 상업이 12가구, 농업이 1가구, 기타 85가구 등으로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22척, 1톤이상 5톤이하가 32척, 6톤이상 10톤미만이 11척, 10톤이상이 18척으로 대부분 소형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과 최

근 원양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90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310대, 냉창고가 310대, 자가용이 30대의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낱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치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7월 총사업비 20만원을 들여 23㎡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1985년 어종별 어획량은 명태 3,400톤, 멸치 150톤, 양미리 80톤, 도루묵 100톤, 그밖에 잡어가 200톤에 달하고 있다.

거진알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동해안의 황금어장으로 주로 명태와 오징어, 문어, 가자미, 꿈치, 잡어 등을 어획하였으나 최근 어족자원이 크게 줄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30가구, 기독교가 8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1년부터 1982년에 걸쳐 마을안길 1,900m와 하수도를 설치했다.

1995년 4월 7백89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93m 확포장했고, 1996년 9월 사업비 7백 56만원을 들여 재해위험지구 석축 13m를 쌓았다.

△ 악수터

• 탁릉천(卓陵泉) : 거성초등학교 입구의 김근(金根)덕 앞에 있는 우물물이 깨끗하고 수질이 좋아 옛날부터 악수터로 유명했었는데 1940년경 건봉사 고승인 탁릉허(卓陵虛)스님께서 사재로 우물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인근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 주었다.

또는 800평을 우물관리를 위하여 기증하여 매년 가을철마다 우물제사를 올려 오다가 약 30년전 마을에서 논을 매각하여 제사를 못올리고 상수도 보급으로 샘물 이용자가 줄어 들고 우물관리가 소홀해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 거진5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0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30명, 여자 348명으로 모두 678명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김씨가 53가구, 이씨가 33가구, 박씨가 13가구, 최씨가 14가구,尹씨가 9가구, 鄭씨가 8가구, 張씨가 3가구, 기타 69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179가구, 경남 4가구, 부산 1가구, 경북 4가구, 서울 6가구,

전북과 경기도, 제주도가 각각 2가구씩, 전남과 충남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160가구, 상업이 30가구, 기타 12가구 등으로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전박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15척, 1톤이상 5톤이하가 14척, 6톤이상 10톤미만 5척, 10톤이상이 5척으로 대부분 소형전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원양조업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198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200대, 냉장고가 197대, 자가용이 33대 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자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1년 3월 총사업비 20만원을 들여 33㎡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지진앞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동해안의 황금어장으로 주로 명태와 오징어, 문어, 카자미, 꽁치, 참이 등을 어획하였으나 최근 어족자원이 크게 줄어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

1996년 5월 사업비 1천1십만원을 들여 재해위험지구 식축 13m와 하수도 5m를 개수했다.

○ 거진6리

△ **마을유래** : 이 부락은 1954년 9월 1일 수북과 동시에 거진2리였던 것이 인구증가로 분구되어 1959년 3월 19일에 거진3리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971년 1월 1일 거진6리로 분리되었다. 현재 287가구중 약 150여가구가 살고 있는 속칭 사비촌(砂飛村)은 수북 당시 수동면 사비리 난민들이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여 생겨 났는데 읍사무소 서북쪽 태봉(泰峰)앞에 위치하여 절단으로 살고 있어 단위 부락과 같은 양지마을이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8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56명, 여자 464명으로 모두 920명으로 비교적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김씨가 69가구,李씨가 52가구,朴씨가 24가구,崔씨가 24가구,鄭씨가 9가구,尹씨가 7가구,張씨가 6가구, 기타 96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43가구, 경북 13가구, 서울 9가구, 경남 6가구, 경기도 4가구, 인천과 전남 3가구씩, 충남과 제주도 2가구씩, 전북과 대구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198가구, 상업이 56가구, 농업이 2가구, 기타 31가구 등으로 대

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5척, 1톤이상 5톤이하가 21척, 6톤이상 10톤미만 5척, 10톤이상이 10척으로 대부분 소형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원양조업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67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 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270대, 냉장고가 265대, 자가용이 56대 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취사와 난방은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8월 총사업비 700만원을 들여 56㎡ 규모의 아담한 스타브건물로 신축했다.

마을금고는 1972년 10월에 처음 자본금 1만5천원으로 설립하여 115가구가 가입한 상태였으나 1985년 4월 29일 해체됐다.

1985년 어종별 어획량은 명태 300톤, 멸치 120톤, 그리고 잡어가 120kg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어족자원이 크게 줄어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30가구, 기독교가 20가구, 천주교가 4가구, 기타 6가구이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274동, 연립주택이 6동이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1년 4월에 자부담 14만원에 8만원의 지원을 받아 거진6리4반에 5m교량을 가설했고, 1971년 4월부터 1982년 6월에 걸쳐 자부담 3천1백50만원과 지원금 1백50만원으로 거진6리의 하수도 30개소(총1,636m)를 설치했다.

또 1977년부터 1981년까지 8개소에 총 736m의 도로를 6백25만원의 지원금과 자부담 2백10만원으로 시멘트 포장을 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6백36만원을 들여 재해위험 지구 석축 13m를 쌓았다.

△ **마을신앙** : 해마다 음력으로 봄이 되면 거진6리7반 우물 뒤편에서 우물제사를 지내는 데 이것은 수목후 우물물이 잘 나오다가 인구증가와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서 부녀자들이 땀을 흘리며 물을 길는 사태가 속출하여 생물이 죽지 않고 계속 잘 나오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시작되어 주민의 안녕과 평온을 결해서 기도하고 있다.

• 의식절차 : 봄철 김일을 때하여 연장자들이 주동이 되어 성금을 거출하고 무당을 초빙하여 기도하고 제주를 헌납하여 헌배토록 한다.

△ 산 등의 전설

• 발향산(發香山) : 마을 뒷산인 태봉의 서쪽 끝짜기 이름이 바람결이며 유래는 알려진 것

이 없지만 1961년 10월 15일 이 골짜기에 무량사라는 절을 건축하였는데 옛날에 주민들이 재사 지내던 골짜기라 하여 분향골이라고도 한다. 때문에 무량사를 건립한 현주자 고광선(高光旋)스님이 배봉 뒷산을 발향산(發香山)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 마을의 명승현황

• 무량사 : 마을뒤 발향산에 1961년 10월 건립한 절로서 거진시내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수목이 울창하며 샘물이 많아 산책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주위가 조용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머무르기도 한다.

• 약수터 : 사비촌 골짜기 안쪽에 자리한 약수암 암자 앞에 사계절 변함없는 샘물이 솟아나 거진시내의 많은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 거진7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3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70명, 여자 395명으로 모두 765명 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김씨가 50가구,李씨가 40가구,朴씨가 13가구,崔씨가 17가구,鄭씨가 6가구,尹씨가 6가구,張씨가 6가구, 기타 92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95가구, 서울 7가구, 경북 6가구, 경남 5가구, 전북과 경기도, 전남 4가구씩, 인천과 충남 2가구씩, 충북 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50가구, 상업이 155가구, 농업이 2가구, 기타 23가구 등으로 마을이 거진시내 중심상가지역에 위치하여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고 생활도 비교적 부유한 형편에 속한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1척, 1톤이상 5톤이하가 8척, 6톤이상 10톤미만이 2척으로 대부분 소형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26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226대,냉장고가 228대, 자가용이 52대, 에어컨이 20대 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6월 총사업비 200만원을 들여 23㎡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36가구, 기독교가 16가구, 천주교가 6가구, 기타 20가구이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230동으로 대부분 상가건물내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금고는 1974년 5월에 설립하여 333만원을 적립하였고, 가입 가구는 110가구였으나 현재는 해체됐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4년에 시장 뒷길 150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95년 4월 사업비 1천1백16만원을 들여 상·하수관로 60m를 개수했다.

거진시장 등 거진지내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종전에는 시장기능이 활성화됐으나 1980년 이후 점차 쇠퇴해 지금은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근대에는 1일, 6일 등 5일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 거진8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3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29명, 여자 539명등 모두 1,068명으로 시내마을중 비교적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김씨가 68가구,李씨가 34가구,한씨가 30가구,崔씨가 24가구,鄭씨가 6가구,尹씨가 13가구,張씨가 9가구, 기타 152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69가구, 경북 14가구, 서울 10가구, 충남 9가구, 경기도와 전남이 7가구씩, 전북과 경남 각각 6가구, 충북 5가구, 인천 2가구, 제주도 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30가구, 상업이 260가구, 농업이 3가구, 기타 43가구 등으로 마을이 거진지내 중심상가지역에 위치하여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고 생활도 비교적 부유한 형편에 속하고 있으나 영세가구도 많이 살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 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1척, 1톤이상 5톤이하가 5척, 6톤이상 10톤미만 2척, 10톤이상 3척으로 대부분 소형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29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330대, 냉장고가 228대, 자가용이 98대, 에어컨이 15대 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8월 총사업비 275만원을 들여 46㎡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51가구, 기독교가 15가구, 천주교가 10가구, 기타 20가구이다. 마을내에 천주교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302동으로 대부분 상가전몰내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각각 1동씩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 시장임구에 지원금 45만원과 자부담 15만원을 들여 암거 4m를 설치했으며, 1978년 6월엔 지원금 3백70만원과 자부담 10만원을 들여 마을중간에 소하천 95m를 정비했다. 또 지원금 2백만원과 자부담 1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97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91년 12월에 5천만원을 들여 거진8리와 거진9리 경계지역의 하수도110m를 설치했고, 1992년 11월 6백26만원을 들여 하수도 흡관 95m를 설치했다.

1995년 5월 사업비 1백43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40m 아스콘덧씌우기를 실시했다.

1995년 8월 사업비 1천9백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5a면적, U형측구 59m, PE관무설 20m를 각각 시설했다.

○ 거진9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4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24명, 여자 450명으로 모두 874명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숲씨가 59가구,李씨가 32가구,朴씨가 19가구,崔씨가 13가구,鄭씨가 10가구,尹씨가 3가구,張씨가 6가구, 기타 105가구가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20가구, 경북 7가구, 경기도와 서울 각각 6가구, 경남 3가구, 충북과 충남 2가구씩, 부산 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이업이 7가구, 상업이 39가구, 농업이 1가구, 노동 150가구, 기타 50가구 등으로 시내에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영세가구들이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상 5톤이하가 2척, 6톤이상 10톤미만 2척, 10톤이상 2척으로 대부분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40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 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240대, 냉장고가 242대, 자가용이 66대, 에어컨이 5대 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7월 종사업비 1백80만원을 들여 23㎡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

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로는 불교 97가구, 기독교 30가구, 천주교 3가구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242동이 있는데 1968년도 재해주택이 5만~8만을 이루고 있고 연립주택도 1동이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 1985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사업비 1천4백82만원을 들여 6만과 7만의 마을안길 260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92년 10월 3천4백만원을 들여 거진9리와 거진11리 정계 하수도 65m와 휴관을 설치하고 70m를 포장했고, 동년 11월에 5백9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과 용역9m를 설치했다.

1993년 5월에 1천4백만원을 들여 거진9리, 거진10리, 자산리를 잇는 안길도로 352m를 포장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7백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40m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마을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고 액을 쫓아내기 위해 매년 1월 3~4일 수외리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행하고 있다. 정초에는 자손이 잘 자라고 흉사가 없었던 집을 도가집으로 선정하고 마을 최연장자를 제관으로 모시고 제사에서 축원을 드리게 한다.

○ 거진10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0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94명, 여자 383명으로 모두 777명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김씨가 46가구,李씨가 28가구,朴씨가 20가구,崔씨가 21가구,鄭씨와 손씨가 7가구씩,尹씨가 8가구,姜씨가 5가구, 기타 65가구가 살고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173가구, 경북 8가구, 서울과 경남 5가구씩, 부산 3가구, 전남과 경기도, 대구 2가구씩, 전북과 인천 1가구씩 등이다.

가구현황은 어업이 6가구, 상업이 7가구, 농업이 15가구, 노동 179가구 등으로 시내에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영세가구들이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하가 2척, 1톤이상 5톤이하가 3척으로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은 소 20마리, 개 95마리를 각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5대, 이앙기 3대 등으로 시내에서 농촌지역으로 왕래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15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전방향과 속초

방향으로 매일 108회 왕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212대, 냉장고가 200대, 자가용이 55대, 에어컨이 5대 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음회관은 1981년 8월 총사업비 1천5백만원을 들여 132㎡ 규모의 현대식 스타브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56가구, 기독교가 27가구, 천주교가 15가구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197동으로 최근 현대식으로 증개축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금고는 1979년 6월에 처음 자본금 240만원으로 설립되어 1985년 자산액이 426만원이 있으며 가입 가구도 202가구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연 300포씩 시멘트를 지원받아 하수도 200m씩을 매년 설치했으며, 1981년에도 시멘트 300포 지원과 자부담 40만원을 들여 하수도 100m를 정비했다. 또한 1980년도에 지원해 준 시멘트 300포와 자부담 4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을 포장했으며, 1984년과 1985년에는 지원해 준 시멘트 500포와 자부담 60만원을 년차적으로 마을안길 142m씩을 포장했다.

1992년 11월 4백3십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40m(폭3m)를 포장했고 1천8백8십만원을 들여 하수도 15m를 설치하고 마을안길 43m를 포장했다.

1995년 7월에 사업비 7백85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235m(폭6.5m)를 포장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5백85만원을 들여 재해위험지역 석축 15m를 쌓았다.

마을의 200여 가구중 70%가 겨울에 여자는 명태 할복작업으로 6개월 동안 평균 1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남자는 명태를 씻거나 말리는 작업으로 년간 1천여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 거진1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79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41명, 여자 460명으로 모두 901명이다.

가구별 성씨분포 현황은 송씨가 49가구,李씨가 24가구,朴씨가 22가구,崔씨가 12가구,尹씨와張씨가 5가구씩,鄭씨가 3가구, 기타 159가구가 살고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31가구, 서울 12가구, 충남 6가구, 경북 5가구, 경기도와 경남 4가구씩, 전북과 전남 3가구씩, 인천과 충북, 광주, 대전 2가구씩, 부산과 대구, 제주도가

각각 1가구의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10가구, 상업이 90가구, 농업이 20가구, 기타 159가구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다.

△ **일반현황** : 선박보유현황은 1톤이상 5톤이하가 1척, 10톤이상이 2척으로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은 소 13마리, 개 64마리를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11대, 트랙터 1대 등으로 시내에서 농촌지역으로 왕래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7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262대가 보급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1982년에 운행이 시작되어 현재는 대진방향과 속초방향으로 매일 108회(10분에 1대)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가 260대, 냉장고가 262대, 자가용이 115대, 에어컨이 10대 외에도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8월 사업비 5백만원을 들여 43㎡ 규모의 현대식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27가구, 기독교가 15가구, 천주교가 6가구, 기타 11가구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109동, 아파트가 3동이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9년 이전에 1반과 2반 사이 뒷길에 있는 약 360m의 배수로를 복개 하였고, 1979년에는 2반에서 자산천까지 배수로 약350m를 복개 완공했다.

1992년 12월 사업비 12억7백9십만원을 들여 도로포장 850m, 교량 120m 등 거진시 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3년차에 걸쳐 착수돼 '95년 12월에 완공됐다.

1995년 5월에 사업비 3천8백만원을 들여 노후보도블럭 900m를 새롭게 정비했다.

해안가에는 겨울철 명태 건조(덕장) 집단지역으로 많은 명태가 활복·건조되어 대도시로 출하되었으나 이로 인한 오수가 할포구의 심각한 오염문제를 야기시켜 '95년도부터 명태 공동활복장을 송포2리에 설치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이용하는 명태 냉동건조장이 늘어났다.

마을내 위치한 거진중·공업고등학교는 전자공업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사학의 명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자산리(慈山里)

△ 위치 : 동쪽에 거진11리, 서쪽에 송정리, 남쪽에는 송포리, 북쪽에는 봉평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자산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이 마을 뒤에 있는 와우산(臥牛山)은 옛적에 자산(慈山)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자산리(慈山里)라 명명하고 마을 앞 하천도 고기(古記)에는 거탄천(巨呑川)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자산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1915년부터 1922년까지는 오대면 소재지였으며, 일제시대 때에는 봉평리 2구(區)라고 불렸다. 속칭명은 자

솔리이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9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143명이고 여자가 123명으로 모두 26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78가구, 경기도 2가구, 전북 1가구, 서울 4가구, 경북 2가구, 경남 1가구, 인천 2가구, 충남 1가구, 경남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김씨 17가구,李씨 8가구,朴씨과鄭씨가 각각 7가구씩,崔씨가 6가구,張씨가 5가구,黃씨가 4가구, 기타 38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7가구, 어업이 1가구, 상업이 4가구, 기타가 70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ha, 밭 3ha, 임야 3ha, 기타 17ha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44두, 개 4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로는 경운기가 20대, 트랙터 1대 등이다.

전기는 1967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0년 3월에 개통돼 급속한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88대의 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문화시설은 TV 90대, 냉장고 90대, 자가용 6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의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8월 총사업비 5백만원을 들여 66㎡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10가구, 천주교가 7가구, 기독교가 3가구 등이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7년 시멘트 150포를 지원받고 자부담 1백만원을 들여 마을회관 앞 교량 4m를 가설했으며, 지진초등학교 임구 100m를 시멘트포장 했다. 또한 개량주배 진입로 100m를 1백만원을 들여 시멘트로 포장했다. 마을회관 진입로 104m를 5백만원을 들여 시멘트로 포장하였다. 1992년 7월 11일 4백99만6천원을 들여 자산—송정간 도로 123m를 포장했으며, 1993년 4월 사업비 5억3천6백만원을 들여 자산—송강간 도로 3.02km(폭 6.5m)를 포장했다.

1993년 7월 사업비 4억8천6백만원을 들여 송강—자산간 군도 2.048km(폭8m)를 확·포장했다. 동년 9월 사업비 7천8백90만원을 들여 자산천 우안제 260m를 쌓았다.

1994년 5월 사업비 5백90만원을 들여 버스승강장 2동을 신축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는 토속신앙이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성황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리장이 제헌관이 되며 마을 고령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제문을 읽고 제주를 끌고루 읍복하며, 음식은 마을 주민이 끌고루 나누어 먹는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쫄쫄씨름,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울,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2월 1일 : 영동일로 및 풍년을 기원하며 하루를 지낸다.

• 3월 1일 :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한해의 무사와 주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성황당에서 지낸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시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와 석물(石物)을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파 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

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잠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부놀이 : 48장으로 된 화두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학단, 만단, 셋따, 육배, 나이뽕뽕, 고스름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기타 : 마을 내에는 거진초등학교가 있고, 거진읍상수도의 수원지가 있다.

△ 마을명소현황

• 자산리고인돌 : 자산리 고인돌은 거진초등학교 뒷산에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 것으로, 자산리 주민들은 성황당으로 신성시하여 담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자산리 마을은 알록은 건봉산에서 발원한 자산천이 흐르고 뒤편에는 화진포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 바닷가에 위치하여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덩개돌의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은 부정형으로, 덩개돌의 일부는 잘려나가고 현재 남은 부분의 크기는 장축 240cm, 폭 160cm, 두께 100cm이다. 하부 구조는 잘려나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판철돌의 크기는 높이 80cm, 길이 60cm, 폭 50-80cm 정도 크기의 덩이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80cm, 폭 70cm, 높이 80cm 정도 남아 있다. 바다 시선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변형된 북방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전창봉 김의종동부인우귀녀기념비 : 이 기념비는 전창봉 김의종과 그 부인 우귀녀가 거진초등학교를 전립할 당시 전립 부지를 기증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전립되었다. 이 전립시기는 1942년으로 확인된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고성군지》

◎ 봉평리(蓬坪里)

△ 위치 : 동쪽에 거진리, 서쪽에 송정리, 남쪽에 자산리, 북쪽에 화포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 이마을에는 축이 많았으며 서방의 판봉 밑에 연못이 있다하여 봉호리(蓬湖里)라 불렀는데, 이는 마을 앞 논과 공동묘지 앞 논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 겨울이면 천수(天水)를 많이 가두어 놓아 이것이 봄철까지 만수(滿水)가 되어 마치 호수를 이루었으므로 용수구미(龍沼隈)로 구전되어 오다 봉호(蓬湖)라고 불렀다고 한다.

고대에 오현면(梧峴面)이었을때 산세를 좌우한 봉평리와 화포리를 합쳐서 오현리(梧峴里)



봉평리 마을전경

라 물러 오다 그후 지형상 연유로 두 마을의 앞과 뒤의 고개(峽)를 사이에 두고 각각 분리 했으며, 1915년 서편에 있는 밭두루마울(外坪里)과 합쳐서 봉평리(蓬坪里)라 명명 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5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85명이고 여자가 74명으로 모두 159명 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53가

구, 서울과 충남, 전북, 경북이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설씨 분포현황은 林씨 16가구, 宋씨 12가구, 金씨 5가구, 尹씨 4가구, 李씨, 朴씨, 崔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14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8가구, 기타가 19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47ha, 밭 19ha, 임야 49ha, 기타 59ha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84두, 닭 21수, 오리 19수, 산양 8마리, 개 97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로는 경운기가 50대, 트랙터 8대, 콤팩트 3대, 이앙기 20대 등이다.

전기는 1968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3년 2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46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47대, 냉장고 46대, 자가용 10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의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7월 총사업비 600만원을 들여 99㎡ 규모의 아담한 스타브전동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10가구, 기독교 8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 공동기관장은 1962년 3월 처음 자본금 5천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마을금고는 1976년 11월 처음 자본금 25만원으로 설립되어 43가구가 가입하여 운영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76년 3월 지원금 2백만원과 자부담 40만원을 들여 봉평리1반의 소하천 200m를 정비했으며, 1970년 3월에서 4월에 마을안길 450m를 270만원을 들여 시멘트로 포장하고 300m이상의 농로를 개설했다. 1991년 12월 9백80만원을 들여 봉평~송정간

도로 102m(폭4m)를 포장했다. 또 1992년 4월 1천2백90만원을 들여 봉평~송정간 도로 120m(폭5m)를 포장했고, 1994년 4월 송정~봉평간 마을길포장 183.5m(폭 3m), 옹벽 26m를 설치했다.

1995년 11월 사업비 2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0m를 확포장했다.

1996년 6월 사업비 1천9백만원을 마을안길 234m를 확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 부르는 토속신앙이 매년 음력 정월에 성황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오래전에 마을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많고 놀기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서 마을의 단합이 안되고 흉년이 겹쳐오자 산신께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제물로논 소머리 외에 주, 과, 포를 푸짐하게 준비하며 재관을 선정하여 제사를 올리는데 술과 쌀을 산에 가지고 가서 직접지어 메로 사용하며 제사 지내는 동안에는 한마디 말도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모두 정숙해야만 한다고 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햇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율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을,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정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라고 식물(石物)를 새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일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음력 6월 6일 : 유두날에는 말하는 머슴을 위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즐겁게 놀았으며 유두날 전까지는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고 유두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을 해준 값을 받았다고 한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퇴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뿌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반단, 셋따, 육백, 나이물뽕, 고스톱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축구행사 : 마을의 농사가 잘되고 의·식·주가 풍족하고 청년들의 의지가 단합되어 8.15전까지 해마다 연례행사로 관동축구대회를 개최했고, 축구팀을 육성하여 고성, 간성, 장전, 동천, 원산 등지로 원정하여 시합을 했으며 당시 마을회관에는 우승기가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얼마전까지 서재용(徐在龍)씨의 전(田)이 하천이었던 것을 청년회가 주동이 되어 공동작업으로 운동장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시합을 했지만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일명 질노래) : 눈에 김을 땀이나 땀일을 할때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 동에 동창 솟은 해가 해질굴에 이별일세
오늘 해도 밭일인지 점심님이 낮더구나
반달같은 점심님이 온달같이 낮더구나
매어주세 매어주세 어서어서 매어주세

② 오두대기

(가사내용)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나 실위아라
산들산들 푸는 바람 모시적삼 입고지고

③ 애향가(愛鄉歌)

(가사내용) 1. 안막뒀산 함정고개는 반공중에 솟았고
그뒤에 높은 산은 망포정이라 한다네
아하아하 우리가 이곳에서 자란다네
2. 동녘에 푸른 숲은 사시장창 푸르고
심작로 너머 마을은 경산리라고 한다네
3. 고개넘어 밭두루는 외평이라 하고요
그 앞에 넓은 들은 대평드루라 한다네

△ 마을의 명소현황

• 의견비(義犬碑) :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마을과 화포리 사이의 국도변에 위치한 속칭 “개무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비바람에 마모되어 식별하기 어려운 비석이 있었는데 수목이후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7번 국도 확장공사시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방치하여 땅 속에 묻어 버려 뜻있는 사람들은 이 비석의 복원을 바라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 화포리에 큰무자가 있어 애완용 개(犬)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인이 간성장에 갔다가 술이 만취되어 돌아오던중 지금의 개무덤(일명 함정고개라고도 함)

에 왔을 때 잔디밭에서 담배를 피우다 술집에 잠이 들어 피우던 담배불이 잔디에 번져갈 무렵, 주인이 외출하면 항상 마중을 나오곤 하던 개가 이날도 주인의 마중을 나와보니 주인은 술과 잠에 취해 누워있고 잔디의 불은 점점 주인에게로 번져오는지라 주인의 위급함을 본 개는 눈물 속으로 뛰어들어 자기 몸을 적서 가지고 불 위로 덩굴고 또 덩굴기를 연속하여 마침내 불을 껐다. 이로 인하여 주인을 구해 냈지만 기운이 빠지고 지쳐버린 개는 그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술과 잠에서 깨어난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불에 고슬린채 개는 죽고 주인이 누워있던 자리만 안타고 있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나 죽은 충절을 위해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지금은 개루덤이 변한 이곳을 개미네기라고 부르고 있다.

• 지석묘 : 거진읍 봉평리2반 뒷산 최준배 집에서 10여m 떨어져 있는데 지면에 개석(蓋石)만 보이고 하부구조는 알 수 없다. 동네에서는 “고려장”이라 전해오며 임시 종중 무덤이라고도 전해오고 있다. 개석의 크기는 1.6m×1.6m×35cm이다.

◎ 화포리(花浦里)

△ 위치 : 동쪽에 거진1리와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송정리와 원당리, 남쪽에는 봉평리와 거진8,9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아득한 옛날 화포리는 예국의 땅으로서 그시대 당시 화포리 동쪽의 높은 산이



화포리 마을전경

마치 매가 앉아 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응봉(鷹峰)이라 하였다고 하며 응봉 앞에 있는 현 화포리 마을의 도국형상이 작은 새가 응봉을 향해 날르는 형상과 같아 화포리의 옛이름을 응추촌(鷹雛村)이라 불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다섯 고을이 있었는데, 하나는 용이 앉았다고 하여 발용골, 소가 등에 얹은 삼징을 밋어 놓았다고 하여 삼정골, 모시나무가 많이 있다고 하여 모시

골, 곰이 풀어 앉은 것 같다고 하여 능골, 산이 꽃처럼 생겼다고 하여 화상골이라 하였다.

이 다섯골이 합하여 오현(梧峴)이라 불리어 왔는데 한 선비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마을이 나비형국이 되어 있으니 잘 잘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지성있는 한 노인이 나비가 있으면 꽃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비가 화전포에는 갈꽃도 많이 피었더라고 하여 그말을 듣고 농부들이 그 후 이 마을의 이름을 화포(花浦)

라 불려 지금까지 불리어 오고 있다.

화포리 성씨로는 고려시대 이전의 성씨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에는 **盧씨**가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아가다가 종적을 감추었고 그후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전 고려말엽 당시 **윤씨**가 정착 하였고, 그 다음은 **파평 윤씨**, **강릉崔씨**, **평창李씨**, **동래鄭씨**, **봉화鄭씨**, **김해金씨**, **경주술씨**, **경신조씨**, **안동張씨**, **연일鄭씨** 등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화포리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은 **용봉산**, 서쪽은 **만포산**, 중앙은 **별고산**, 각담산을 이루고 있다. 골은 **장평동**, **고진동**, **반용동**, **삼정동**, **월평동**, **차동**, **표시동**, **울동**, **만포동**, **망화고동**, **화산동** 등으로 이루고 있다.

1915년 호반(湖畔)에 있는 장평리(長坪里)를 화포리에 편입 시켰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1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170명이고 여자가 188명으로 모두 358명 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94가구, 경북 5가구, 전남과 서울 4가구, 충남 3가구, 충북 2가구, 전북과 부산, 경남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윤씨**와 **술씨**가 각각 22가구씩, **李씨** 14가구, **崔씨**가 7가구, **鄭씨**가 2가구, **張씨**와 **朴씨**가 1가구씩, 그리고 기타 42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08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2가구 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0ha, 밭 28ha, 임야 288ha, 기타 146ha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208두, 돼지 210두, 닭 19수, 오리 8수, 산양 2마리, 개 41마리, 토끼 60마리 등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24대, 트랙터 5대, 콤파인 8대, 이앙기 20대 등이 부족한 농촌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66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4년 3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11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8년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110대, 냉장고 109대, 자가용 11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옥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90동이고, 군인아파트 3동이다.

마을회관은 1977년 6월 총사업비 2백만원을 들여 60㎡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30가구, 천주교 4가구, 기독교 2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금고는 1985년 1월 처음 자본금 6만원으로 설립되어 30가구가 가입하여 운영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76년 3월 지원금 50만원과 자부담 20만원을 들여 마을앞 화진포 호수 주변에 소하천 100m를 정비했으며, 1982년에 공사비 30만원과 시멘트 500포를 사용하여 마을안길 100m를 포장 했다. 1983년에는 시멘트 500포와 공사비 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00m를 연장 포장했으며, 1984년에는 시멘트 1 200포와 공사비 6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250m를 연장 포장했다. 또한 1972년, 1973년, 1978년에 각각 마을안길 800m, 1,500m, 100m되는 농로를 개설했다.

1992년 4월 사업비 7천4백60만원을 들여 화죽선(화포-죽정간) 345m(폭 7.5m)를 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4천4백70만원을 들여 화포-죽정간 도로 240m를 확·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6천4백60만원을 들여 화포-죽정간 도로 240m(폭7m)를 포장했고, 울벽 153m, 측구 533m를 설치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39m를 확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화포리 뒷산에 있는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오랜 옛날 예맥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제사로 마을 주민의 평안과 대풍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붉은 말을 잡아 왼쪽 일부는 천제당에 드리고 오른쪽 일부는 성황당에 드리며 머리는 중간에 놓고 제를 올린다.

• 의식절차 : 생기가 좋은 도가(都家)를 선정하면 선정된 도가는 금계를 하며,제물을 준비하고 헌관 1명, 축관 1명, 제관 3명이 편, 메, 주, 과, 포로서 제사를 지내고 풍년과 질병을 없애고 일년내내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각호의 소지를 올리고 끝내며 제사음식은 마을주민이 나누어 먹는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조상제를 마치고 웃어른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을에서 세배를 올린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잡기, 쫓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율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을,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불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음력 6월 6일 : 유두날에는 일하는 먹습을 위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즐겁게 놀았으며 유두날 전까지는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고 유두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을 해준 값을 받았다고 한다.

• 삼 · 복(三 · 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퇴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팥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만단, 섯파, 육백, 나이롱뽕, 고스톱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논이 김을 땔때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 심심하고 양양하나 질고나기 불러보세

매어주게 매어주게 바다같은 이논뽕이 매어주게

오늘해도 다갔는데 골골마다 그늘일세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 그늘졌지.

△ 산, 나무 등의 전설

• 우적나무(우적나무) : 무명의 나무 한 그루가 마을 안에 있는데, 이나무를 베면 마을의 소가 병이 난다고 하여 우적나무라 부르고 있다고 하며 아무도 이나무를 해치지 못한다고 한다.

• 소나무 : 고려시대 때부터 자라온 나무라고 하여 이 나무의 잔주, 가호가 큰 옥골집이어서 큰 옥골집 서낭나무라 불리워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 정자현황

• 망포정(望浦亭) : 화포리 마을 앞산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현재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 화진정(花津亭) : 화포리와 원당리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간성읍지(杆城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순조(純祖) 정묘년(丁卯年)에 군수 이승로(李昇老)가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 간성군수가 춘추로 이 정자에 와서 죽정4리의 주민들이 햇뜰을 밝히는 가운데 화진포에서 뱃놀이할 하였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도 이 곳에서 화진포(花津浦)와 금구도

(金龜島)를 바라보는 정치는 가히仙境(仙境)이라 할 수 있다.

△ **지석묘군** : 화진포 동남쪽 야산일대에 모두 6기의 지석묘가 산재하는 지면에 개석(蓋石)만 드러나 있어 하루구조는 알 수 없으나 크기는 ①4m×1.84m×18cm, ②3.26m×2.2m×34cm, ③90cm×1.35m×25cm, ④1.5m×2.06m×16cm, ⑤1.48m×2.1m×20cm, ⑥2.23m×2.22m×21cm 등이다. 또 장평에는 북방식 개석(蓋石) 크기 1.12m×1.77m×36cm 등이다.

◎ 원당리(源塘里)

△ **위치** : 동쪽에 화진포가, 서쪽에는 노인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에는 송정리, 북쪽에는 죽정2리가 위치하고 있다.



원당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마을의 속칭명은 월안리(月安里)라 하는데 이는 뒷산이 반달형이라 하여 부르던 동반월동(東半月洞)과 서반월동(西半月洞)을 합쳐서 월안리라 하였다고 하며 후에 원래 서북간에 연못이 있다하여 부르던 원당리(源塘里)에 편입 됐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60명이고 여자가 57명으로 모두 117명 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1가구로 가장 많고, 대전 2가구, 충남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윗씨 14가구, 후씨가 5가구,尹씨와朴씨가 각각 2가구씩, 金씨가 3가구,李씨와 魚씨가 1가구씩, 그리고 기타 6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9가구, 운수업이 1가구, 기타 4가구 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1ha, 밭 23ha, 임야 248ha, 기타 57ha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170두, 닭 30수, 산양 5마리, 개 20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29대, 트랙터 10대, 콤바인 4대, 이앙기 16대 등이 부족한 농촌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4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3년 3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29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8년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29대, 냉장고 29대, 자가용 6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 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1년 3월 총사업비 720만원을 들여 50㎡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금고는 처음 자본금 1백만원으로 설립되어 1985년도 2백만원이며 가입가구가 30 가구 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75년 3월 지원금 70만원과 자부담 24만원을 들여 교당 15m를 가설했으며, 1975년 7월 지원금 1천3백만원을 들여 소화천 700m를 새롭게 정비했으며 1984년 8월 5일 시멘트 1천포를 사용하여 마을안길 200m를 포장했다.

1991년 3월 2천8백만원을 들여 원당소하천 참쌍기 226m를 시행했다. 1991년 1월에 3억8천2백만원을 들여 35.07ha 구역에 농리면적 30.88ha의 경지정리 작업을 추진했다. 1993년 8월 사업비 6천5백50만원을 들여 원당 소류지 차수벽 33m, 통관개량 등 보강공사를 했다. 1995년 지원금 8백5만8천원과 자부담 2백23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70m와 마을회관을 팔끔히 보수했다.

1995년 11월 사업비 1억7천3백90만원을 들여 원당구역 35.07ha에 농리면적 30.88ha의 경지정리 작업을 마무리 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는 불리우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초순새벽에 고청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옛날 화진포 마장골에 이화진이란 사람의 자부(子婦)인 高씨가 시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모승(某僧)을 따라 가다가 뒤돌아 보면 안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한 고청성황당까지 따라가서 뒤를 돌아 보았더니 이화진의 집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고 하며(현재의 화진포가 되었다). 화진의 며느리 고씨는 소나무에 목을 매고 죽어 여성황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이곳에서 마을의 무사함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마을 명소현황

• 화진포(花津浦) : 화진포(花津浦)는 (이 일대는 옛적에 가평(加平)이라고 했다) 동해와 연결하여 자연풍광이 수려하고 면적 72만평 둘레 16km의 광활한 호수에 주위에는 울창한 송림이 병풍처럼 둘러 쌓여 있다. 포구에 기암괴석의 신비가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수심이 얕고 해저가 청아하여 주옥같은 백사장이 명사십리(明沙十里)를 이루고 있다. 해안의 습밭에 펌프를 막으면 자연수의 물 맛이 특이하게 나오므로 상수도 시설이 필요없는 특징도 있다.

수천년동안 조개껍질과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화진포는 호수와 교류되어 있는 염담호수(鹽淡湖水)로 해수욕장으로는 최적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연어, 송어, 도미 등 갖

가지 어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수면이 많아 사철내내 태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낚시터로도 손꼽히고 관광지로서도 아무손색이 없는 소지와 요건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제 말까지는 외국인 별장지였고 해방후 6.25동안 전 적지라 때에는 김일성(金日成)이 쓰던 별장이 아직도 남아 있고 자유당 때에는 전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휴양지로 사용되었었다.

특히 모래밭이 하얗기로 유명하고 모래에 모나즈(monaz)성분이 많아 모래를 밟으면 감촉이 부드럽고 개미등 곤충류(昆蟲類)가 살지 않으며 맑은 동해의 해수가 화진포 담수와 교차하여 해수욕장으로도 최적지이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호수의 이름은 원래 열산호(烈山湖)로 불리워졌다. 화진포 건너 마을에 열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화진포 끝속에서 옛날의 열산현(烈山縣)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해 큰 비가 내려서 열산현 마을이 송두리채 물에 피내려가고 마을이 있던 곳이 차차 물에 잠기기 시작하여 지금의 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이곳 사람들은 열산등 산쪽으로 마을을 옮겼다고 하는데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하여 물결이 일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옛날 촌락이 있던 터와 담장을 쌓았던 자취가 보인다고 한다.

가을과 겨울이면 철새들이 떼지어 찾아와 넓은 호수에서 유유히 노닐기도 한다. 또 호수 주위의 경치가 좋아 죽정(竹亭), 모연(暮煙), 증암(楓岩), 귀범(歸帆), 장평(長坪), 낙안(落雁), 가평(加平), 야종(夜種)을 화진팔경(花津八景)이라고 하는데 거전을 원당리와 죽정리 쪽의 푸른 소나무를 화진포에서 바라보면 마치 정자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화진정(花津亭)이라 하였고 저녁해가 서산에 기울면 죽정, 원당, 산하리에서 저녁짓는 굴뚝연기가 한폭의 풍경화를 이루어 태평세월을 실감케 한다.

가을이 되어 바위 부근에 단풍이 곱게 물들게 되면 그 경치는 더욱 으뜸이다. 호수와 맞닿은 바닷가에서 조각배에 몸을 싣고 고기잡이 하던 뚝단배가 돌아오는 풍경은 마치 선경(仙境)이라 할만하다. 이외에도 벚사장이 광활하여 마치 큰 평야를 연상케 하고 떼지어 놀던 기러기가 하늘 높이 날았다 호수에 내려앉는 모습은 화북의 그림과도 같다.

겨울이 되어 호수가 얼고 무성했던 갈대가 쓰러지면 황금 벌판과도 같아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서울부자에게 큰 평야라고 속여 이 호수를 팔았다는 전설이 있다.

또 고성군문화원에서 1997년도 발행한 고성지역의 기층문화에 의하면 화진포 팔경(八景)의 제1경은 원당리 마을 앞에 호수에 비친 반달 그림자와 누런 가을곡식,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풍광이 아름다워 '월안풍림(月安楓林)', 제2경은 화포리 찻굴(차동)에서 저녁 밥을 짓는 연기가 물계몽게 피어 오르는 모습이 한폭의 그림과 같다하여 '차동취연(次洞炊煙)' 제3경은 호수 주변 모래밭에 피는 빨간색 해당화가 봄에 피는 모습이 영롱하여 '평사해당(平沙海棠)', 제4경은 호수동편에 있는 장평부근에 찾아오는 많은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청명하여 '장평낙안(長坪落雁)', 제5경은 화진포 앞바다에 떠 있는 금구도(金龜島)의 모습이 한가로워 '금구농과

〈金龜弄波〉, 제6경은 화진포 호수의 물이 바다로 빠지면서 바닷물과 부딪치며 물결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마치 용(龍)이 물을 차는 듯하여 '구룡치수(口龍治水)', 제7경은 풍암벌장에서 보이는 돛단배가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이 정겨워 '풍암귀범(楓岩歸帆)', 제8경은 모화정리(茅花亭里: 지금의 죽정1리)의 호수변의 모래밭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어 '모화정각(茅花亭閣)'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풍류시인이 김삿갓이 화진포에 머무르는 동안 이를 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당시 거진읍 냉천리에 있었던 건봉사(乾鳳寺)와 현내면 명파리에 있었던 조제암(鳥啼庵)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목탁과 독경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며 삼매선경(三昧禪境)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고성군의 군화인 해당화가 이곳에서 집단으로 피어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겨울 철새이면서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와 청둥오리 등 철새가 많이 날아와 호수일대에 장관을 이루고 있다. 초도리 앞 500m 해상에는 1,000여평 면적의 섬인 금구도(金龜島)가 있다. 섬의 모양이 마치 거북이가 남쪽을 향해 기어가는 듯하여 금구도(金龜島)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신라시대 수군의 기지로 사용해 해안을 지키던 곳으로 섬의 북쪽에 석축의 일부가 남아 있고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섬의 중심부에서 외편과 주춧돌이 1997년 4월 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반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1990년 12월 27일 개발대상면적 3.347㎢중 1.697㎢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개발제한으로 현내면 초도리 0.26㎢의 해수욕장개발을 위한 호안정비,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신축, 주차장 조성, 진입 확포장 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화진포 관광개발은 고성지방의 관광거점으로 향후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관광의 교두보로서 켄펜션센터, 실버타운, 유람선, 놀이공원 등 다양한 관광위락 및 휴양시설을 도입해 국제적인 해안 종합휴양단지화하면서 남북 관광교류사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1997년 3억원을 들여 한국종합기술공사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용역 의뢰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조상제를 마치고 웃어른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음으로 세배를 올린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디워판기, 햇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간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을, 호도 등을 끼우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정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을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4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정

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퇴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팥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잠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만단, 섯따, 육백, 나이롱뽕, 고스톱 등으로 지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송정리(松亭里)

△ 위치 : 동쪽에 본평리, 서쪽에 송강리, 남쪽에 서문리, 북쪽에 원당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마을의 중심 일대에 노송이 많아 좋은 절자를 이루고 마을 앞 하천에는 맑은



송정리 마을전경

물이 흐르며 앞산에는 냉정(冷井)터(일명 냉장골)가 있어 송정리(松亭里)라 부르게 되었으며, 1915년까지는 오현면(梧峴面) 소재지였다.

이 마을 서쪽에 옛부터 있었던 동대리(東岱里 속칭 동터) 바람부리는 일제시대 중엽에 이산(離散)되어서 현재는 농지가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7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24명, 여자 120명으로 모두 244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65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3가구, 충남 2가구, 전남과 충북이 각각 1가구 등으로 토속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南씨 11가구, 李씨가 9가구, 崔씨가 8가구, 金씨가 5가구, 朴씨가

3가구, 찰씨가 2가구, 기타 34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60가구, 기타 12가구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67ha, 밭 12ha, 임야 372ha, 기타 82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238두, 토끼 13마리, 개 78마리 등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양제장에서 닭 1만7천여수를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59대, 트랙터 19대, 콤바인 14대, 이앙기 41대 등이 부족한 농촌 입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4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4년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7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8년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70대, 냉장고 70대, 자가용 11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탄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4월에 총사업비 6백만원을 들여 60㎡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30가구, 기독교와 천주교 각각 2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9년4월 지원금 6백만원과 자부담 2백만원을 들여 송정과 송강 사이에 교량 61m를 가설했으며, 1981년 4월 지원금 2백만원과 자부담 40만원을 들여 무시굴에 소하천 320m를 정비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연3회에 걸쳐서 마을 안길 1,600m를 총공사비 5천6백만원을 들여 식염트로 포장했다. 1992년 8월 1억5천9백 만원을 들여 100㎡/일 오수처리시설을 갖췄다. 1992년 11월 6백80만원을 들여 마을 안길 203m를 포장했다.

1995년 4월 사업비 9백43만원을 들여 송정-봉평간 마을길 540m를 포장했다.

1995년 5월 사업비 5백95만원을 들여 잔여상수도 PE관로 35m를 매설했다.

1996년 11월 사업비 8백96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53m를 확포장했다.

△ 마을신앙

• 고청성황당(高廳城隍堂) : 마을 뒷산에 있는 것으로 거진읍내의 가장 우두머리 성황당으로서 해마다 춘추에 제사를 올리고 읍민의 평안과 농업의 풍작과 동해바다의 풍어를 기원하여 왔는데 1960년대부터 제사를 올리지 않고 있다. 과거 일제시대 때 거진내 어민들이 고청성황제를 올리고 풍어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일화로 김두현(金斗鉉)씨가 꿈을 꾸고 제사를 올린 후 바다에 나가 많은 고기를 잡아 당시 거진 공회당을 단독으로 전립하여 기증했다고 하며 수복이후에도 별면 제사를 올려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나무 등의 전설

• 평자나무거리 : 송정초등학교에서 서쪽 200m지점에 있었다. 동대(東臺)에 있었던 나무

로 과거 송정리와 상거리(上巨里 송강리)가 오현면(梧峴面 그 이전에는 東塲面이라고도 했다)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을때 이곳을 거쳐 수동면과 현재방면으로 가는 무곡보부상들의 검문소 구실을 하였던 곳으로 검사대상은 어(漁), 염(鹽), 식수(食水), 목물(木物), 철(鐵) 등의 식품과 물건이었으며 이곳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저린 고기와 식염을 등에 지고가서 곡식과 바꾸는 통과요로 이다. 현재 이나무는 고사하여 없어지고 그자리는 경지가 되었다.

△ 마을의 명소(名所)현황

송정리 마을앞 무시골 냉정골에 차가운 물이 솟아나오고 있다. 이 물은 여름철에도 목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냉수가 솟아 이곳에 암자를 짓고 정성을 들였다는 전설이 있으나 현재는 물이 많이 나지 않고 있고, 1986년도 송강리일원의 대형산불로 인해 주변의 송림이 모두 소실되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조상제를 마치고 웃어른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을에서 세배를 올린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햇물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을,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외 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귀업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만단, 섯따, 육매, 나이동뽕, 고스톱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용하리(龍下里)

△ 위치 : 동쪽에 송정리가 있으며, 서쪽에는 수동면, 남쪽에는 송강리가 위치하고, 북쪽에는 산북리가 자리잡고 있다.



용하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마을 뒤에 용의 형상을 닮은 암산이 있으며 마을 앞에는 늪(湖)이 있었으므로 옛적부터 용호촌(龍湖村)이라 불려왔는데 1915년 행정구역 방향으로 하산북리(下山北里)와 합하여 용하리(龍下里)라 부르게 되었다. 일제시대 말에는 이곳에 토기를 만드는 토기점(土器店)이 1973년까지 있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98명, 여자 88명으로 모두 186명이다.

출산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6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1가구, 서울 1가구 등으로 토속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李씨 10가구, 金씨가 8가구, 朴씨가 7가구, 金씨가 5가구, 卓씨가 4가구, 宋씨가 3가구, 延씨가 2가구, 劉씨가 2가구, 기타 5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0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7가구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2ha, 밭 25ha, 임야 65ha, 기타 42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140두, 오리 100수, 닭 100수, 개 53마리 등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양돈장에서 돼지 1,450두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26대, 트랙터 10대, 콤바인 6대, 이앙기 21대 등이 부족한 농촌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9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4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1년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54대, 냉장고 48대, 자가용 14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5월에 총사업비 3백만원을 들여 99㎡ 규모의 이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으로 기독교 9가구, 천주교 9가구, 불교 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3년 마을알 고랑 11m를 가설했으며, 1973년 3월 마을부근에 있는 소하천 800m를 정비했고, 마을안길 100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1년 4월 사업비 1천5백70만원을 들여 용하~산북간 도로 400m를 포장했다.

1993년 4월 1천5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289m(폭3m)를 포장했다.

1995년 4월 사업비 6백3만원을 들여 마을길 25m를 보수했고, 5월 사업비 4백70만원을 들여 간이살수도 관로 500m를 개수했으며, 사업비 7백90만원을 들여 평화촌 도수로 57m를 정비했다.

△ **마을신앙** : 삼월 산신제라는 불려우는 토속신앙을 매년 3월 3일 홍골산에 있는 폭포(형제소)옆에서 행하고 있다. 산신제를 지내게 된 유래는 옛날에 형제가 산에 나무 하러 가서 나무를 다 하고 동생이 목욕하기 위해 폭포로 들어 갔다가 빠져 죽게 되어 이를 본 형이 동생을 구하러 들어가 형제가 모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들의 넋을 달래고 위로하며 마을주민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산치성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조상제를 마치고 웃어른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을에서 세배를 올린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췌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율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울, 호도 등을 찌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새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춰 되었던 식물을 복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잠귀를

물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만단, 셋파, 육백, 나이뽕뽕, 코스뽕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산북리(山北里)

△ 위치 : 동쪽에 원당리, 서쪽에는 수동면, 남쪽에는 용하리읍, 북쪽에 현내면 화곡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병인양요 후에 노인산 밑에서 토기를 구워 생계를 이어오던 마을인 토기질 마을과 거진면에서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부르던 산산북리(上山北里)란 마을이 혼어져 살다가 후에 두마을을 합쳐서 산북리라 불렀다. 속칭 산두라 부르다가 후에 산북리(山北里)로 고쳐 부르고 있다.



산북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2명, 여자 47명으로 모두 9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4가구, 서울 3가구, 경북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솔씨 13가구, 박씨가 4가구, 강씨가 3가구, 손씨가 2가구, 이씨와 윤씨, 박박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 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5가구, 상업이 3가구, 기타 10가구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2ha, 밭 19ha, 임야 381ha, 기타 47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101두, 토끼 46마리, 닭 93수, 개 27마리 등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는 정운기 22대, 트랙터 3대, 콤팩트 2대, 이앙기 8대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4년 12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2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1년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28대, 냉장고 28대, 자가용 8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4월에 총사업비 7백만원을 들여 99㎡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기독교 4가구, 천주교 3가구, 불교 2가구, 기타 16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3년 12월에 1천9백만원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마을 중앙에 교량 30m를 가설했고, 1970년 3월에 지원금 1백만원과 보상금으로 마을 앞 소 하천 100m를 정비 했다.

△ **마을신앙** :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연 2회,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마을뒤 성황당에서 산신제를 행하고 있다.

△ **지명의 속칭**

- 구승소 : 소 먹이를 담아주는 구승(구유)간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
- 단지소 : 항아리처럼 둥글다하여 붙여진 이름.
- 지네소 : 지네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그외 오동골, 산두골, 구시농골, 지장터 소둔지, 젓골이라는 여러 골짜기가 있고, 동쪽에는 노인산이라 부르는 산이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조상제를 마치고 웃어른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음에 서 세배를 올린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햇불자옹, 널뛰기, 연날리기. 훗날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유,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피 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

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송강리(松江里)

△ 위치 : 동쪽에 송정리가 있으며, 서쪽에는 수동면, 남쪽에는 석문리, 북쪽에 흥하리가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학봉산하에 있는 대대골(大谷村)과 고대에 동구(東口)섬이라 부르던 몽강촌(夢江村)을 합하여 상걸리(上巨里)라 불려오다 후에 송강리(松江里)라 부르고 있다. 수북당시 이 부락이 뒤늦게 입주가 허용되어 옛송강초등학교는 송정리로 옮겨졌다. 마을 남쪽에 해당하는 산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었으나 1986년에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수목이 소실되어 현재는 잡목이 우거져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0가구가 살고 있다.



송강리 마을전경

인구는 남자 71명, 여자 69명으로 모두 140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3가구, 서울 4가구, 경기도와 경남, 전북이 각각 1가구씩으로 도시간구의 지방이주정책에 따라 이주영농을 위해 정착한 가구가 살고 있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김씨 18가구, 박씨가 3가구,趙씨와 咸씨가 각각 2가구씩, 車씨와 崔씨가 각각 1가구

씩, 기타 1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6가구, 기타 4가수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89ha, 밭 18ha, 임야 308ha, 기타 70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124두, 돼지 10두, 닭 90수, 개 65마리 등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양봉 12군과 흑염소 6백여두를 방목하여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15대, 트랙터 7대, 콤바인 6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4년 1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4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3년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40대, 냉장고 40대, 자가용 11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3년 5월에 총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 60㎡ 규모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5가구, 천주교가 1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9년 5월 지원금 1천만원과 자부담 3백만원을 들여 마을입구 교량 32m를 가설했고, 1984년 10월 지원금 1천5백만원과 자부담 3백만원을 들여 마을앞 소하천 300m를 정비했다. 1991년 12월 1억8백5십만원을 들여 남은 교량을 철거하고 길이 52m(폭 7.5m, 높이 5m)의 새교량을 설치했다. 1992년 3월에 1천2백만원을 들여 송강-용하-산북간 연결도로 360m를 포장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조상제를 마치고 웃어른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을에서 세배를 올린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판기, 팻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율농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굴,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새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되 되었던 식육을 복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석문리(石門里)

△ 위치 : 동쪽에 오정리와 초계리, 서쪽으로 냉천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에는 간성읍 해상리와 북쪽에 송강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석문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서북간의 문안골(門內谷) 어구에 있는 계류(溪流)의 양쪽산 옆에 절벽을 이루는 암석이 있는데, 그 모양이 돌기둥(石柱門)을 세운 것과 같은 형상이라 하여 석문리(石門里)라 불렀다. 문안골에는 옛 절터가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2명, 여자 55명으로 모두 107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7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북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李씨와 황씨, 成씨가 각각 6가구씩, 손씨가 3가구, 南씨와朴씨, 張씨, 鄭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 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2가구, 기타 6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5ha, 밭 23ha, 임야 514ha, 기타 59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98두, 닭이 10마리, 오리 2마리, 개 59마리를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20대, 트랙터 8대, 콤바인 2대, 이앙기 15대 등이 부족한 농촌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4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1년 7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2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3년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28대, 냉장고 28대, 자기용 6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1년 4월에 총사업비 370만원을 들여 79㎡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건물로 신축됐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기독교가 14가구로 과반수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6년 5월에 자부담 50만원과 지원금 1백70만원으로 마을앞에 30m의교량을 가설했고, 1980년 3월에 지원금 1백70만원과 자부담 34만원을 들여 마을앞 소하천 270m를 정비했다.

1993년 4월 1천7백만원을 들여 초계, 오정과 함께 마을안길 236m(폭4m)를 포장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8백50만원을 들여 농업용수로 160m를 새롭게 설치했다.

1996년 7월 사업비 1천4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포장 5.46a과 하수관 90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음력 정월 초하루에 마을의 성황나무 앞에서 한해동안 마을의 두사고와 안녕을 위해 마을공동으로 치성제를 드리고 있다.

• 의식절차 : 일반 제사의 차례와 같으나 특히 돼지머리를 쓰며 닭이 울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

△ 냉천현황

• 냉정터 : 석문리에 위치한 군부대 골짜기(승직골)에 있는 바위 틈에서 소량의 냉천이 나오는데 여름에 매우 차며 군부대가 위치하기 전에는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물에 목욕을 하면 팔찌와 피부병이 팔끔히 치료되는 효험을 보았다고 한다.

△ 마을세시 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췌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전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췌불, 호도 등을 깨우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을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조과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퇴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관죽을 수어 먹으며 집안의 잠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만단, 섯파, 육백, 나이동뽕, 고스름 등으로 식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초계리(草溪里)

△ 위치 : 동쪽에 오정리와 서쪽으로 석문리와 간성읍 해상리, 남쪽에는 간성읍 교동리, 북쪽에 송정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높은 산(高峴山) 아래인 와우산(臥牛山) 기슭에 여섯 모퉁이[동안터, 장밭골(長位田洞), 윗마을(上村), 새잇마을, 아랫마을, 읍용동]로 나뉘어져 살며 마을 길이가 1.5km나 되는 부락으로서 마을 앞에 길게 흐르는 소하천은 옛부터 장마때마다 범람하여 매년 농지



초계리 마을전경

가 사토(沙土)로 매몰 되어서 매우 모래(沙)가 많고 또는 외나무 다리가 많기로 유명하며 항상 다리놓기에 도끼(斤)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옛적에는 사근다리(沙斤橋里)라고 했다. 그후 조선 중엽에는 모래가 시내(溪)로만 흐르라고 사계리(沙溪里)로 고쳤다. (1915년까지 대대면(大倣面) 소재지)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대헌 문원공(大賢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아호가 사계(沙溪)이므로 유림(儒林)으로부터 리명 변경의 요구가 많아 1915년에 초계리(草溪里)로 개칭하였다.

이 부락에 초계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자유당 초기에 오지(奧地)라고 하여 대대리로 옮겨졌으며 농경지 정리 후에도 다리가 7개소나 건설되어 한 마을에 다리가 많기로 유명하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68명, 여자 56명으로 모두 124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0가구이고, 경남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황씨가 23가구, 허씨가 9가구, 손씨가 3가구,宋씨와 張씨, 咸씨, 高씨, 安씨, 尹씨가 각각 1가구씩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6가구, 기타 5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5ha, 밭 12ha, 임야 173ha, 기타 64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59두, 닭이 11마리, 오리 12마리, 산양 38마리, 개 72마리, 돼지 85두를 각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17대, 트랙터 3대, 콤바인 6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6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39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4년 4월에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52대, 냉장고 39대, 자가용 12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4월에 총사업비 2백만원을 들여 56㎡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기독교가 4가구, 불교 3가구, 유교 10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0년 4월에 초계리 아랫마을에 지원금 1천만원과 자부담 2백만원을 들여 교량 25m를 가설했고, 1983년 2월 1일 지원금 2천만원과 자부담 5백만원을 들여 웃마을에 교량 25m를 가설했다. 1970년 9월에는 지원금 2천5백만원과 자부담 5백만원을 들여 초계천 2,000m를 정비했고, 1970년 3월에 농로 4km를 개설했다.

1985년 5월에는 지원금 1천9백90만원과 자부담 2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00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79년에는 초계리와 석문리 일대의 농경지 정리작업을 마쳤다.

1993년 4월 1천7백만원을 들여 석문, 오정과 마을안길 143m(폭4m)를 포장했다.

1996년 7월 사업비 5백90만원을 들여 용수로 23m와 난개벽을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초순 성황제단에서 행하고 있다.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가수우(家家受祐), 수복강녕(壽福康寧), 오곡풍등(五穀豐登), 육축번식(六畜繁殖) 등을 기원하며 지내는 의식으로 제관을 선정하여 제관은 헌관, 대축, 접사 약간 명으로 일반 제사절차와 같이 지낸다.

초계리 지성축문(草溪里 致誠祝文)

維歲次....

皇天后土之神

山神城隍之神, 伏以降監, 孔昭默祐, 下民厚德, 載物普濟, 山嶽神祇, 惟神惟靈, 實賴安寧, 所願皆遂, 有禱必應, 衆生咸有一德, 永保始終, 令以歲首, 天時泰亨, 擇清穀日, 敢竭誠, 掃地神壇, 淨盥道場, 旨酒既清, 以樽以酌, 虔薦牲幣, 謹具庶羞, 致誠焚香, 一心齊沐, 百拜祇薦, 上下一同, 信男善女, 人人受祐, 家家康寧, 子孫昌盛, 福祿無窮, 其壽無疆, 增福增壽, 避凶趨吉,

向陽肯嘆。祥鎮具至。永祛遠戍。永除災厄。天無降災。五穀豐登。六畜繁殖。惟時神護。伏惟尊靈。是享是嘗。庶降慈謫。勿咎菲薄。昭明欽格尙饗。

(자료제공 : 초계리 李白圭)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 1일 : 설. 해를 새로 맞이하느라 일가 어른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조상을 추모하여 차례를 올리고 몸을 단장하며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근래에는 직업으로 인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친지들이 고향으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연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음력 1월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췌불싸움, 널뛰기, 언날리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무사하고 부스럽나지 말라고 기원하는 뜻으로 생을, 호도 등을 깨우는 풍습이 있다.

• 음력 2월 6일 : 종생이 보기라 하여 별이 달보다 앞서가면 흉년이요, 별이 달뒤에 따르면 풍년이 든다는 풍속이 있다.

• 음력 3월 3일 : 삼짇날. 중삼(重三)이라고도 하며 진달래 꽃을 뜯어서 전을 부쳐 먹으며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온다고 하여 헌집에 거미줄을 끌고 새비오기를 기다린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와하고 석물(石物)로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한다.

• 음력 5월 5일 : 단오절. 청포루리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며 여자는 그네뛰기를, 남자는 씨름을 즐기며 약쑥과 익모초를 캐기도 한다.

• 삼·복 : 1년중 제일 다운날이라고 하여 감외 되었던 식욕을 복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겨 논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음력 7월 7일 : 칠석(七夕)이라고 하며 전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기쁨에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된다고 한다.

• 음력 8월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전통이 있다. 근래에는 직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이동해 교통 혼잡이 벌어지기도 한다.

• 음력 10월 : 시제(時祭, 歲祭).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 동지(冬至) : 올해의 무사하기를 빈다는 뜻에서 붉은 팔죽을 쑤어서 집안의 잡귀를 몰아낸다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반단, 섯파, 육배, 나이뽕뽕, 고스톱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

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고금바위 : 초계리 아랫마을 서북간에 있는 선바위굴(立石谷)에는 주위가 병풍을 두른 듯한 맑은 바위중에 50m 이상의 깎아 세워 놓은 듯한 수직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위에서 평평한 놀이터가 있어 옛적에 선선이 떠칠을 놓고 갔다는 전설이 내려오며 지금도 이곳은 사계절 마을 놀이터가 되고 있다.

옛부터 고금령「마라리아」에 걸린 사달이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바위가 쓰러지는 듯 하여 현기증을 일으켜 놀라서 어리석은 고금병「마라리아」를 고쳤다고 하여 고금바위라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 오랜 나무현황

- 참나무 : 웃마을에 위치하며 수령 약 400년 되었다고 한다.
- 소나무 : 웃마을 남산(南山) 고열에 위치하여 수령 약 300년 정도라고 한다.
- 소나무 : 웃마을 뒤 골짜기(만근골)에 있는 성황나무로 수령 약 300년가량 됐다.

◎ 오정리(梧亭里)

△ 위치 : 동쪽의 송죽리와 만암리, 서쪽의 석문리와 초계리, 남쪽의 대대1리, 그리고 북쪽에 송포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태고때부터 마을 옆에 있는 바위 틈에서 옥수(玉水)가 잘 솟아 나오므로 옥길



오정리 마을전경

동(玉吉洞)이라 불렀다. 그후 조선 중엽에 와서 마을의 샘물을 주(周)나라의 유명한 칠수(漆水)에 비유하여 칠동(漆洞)이라고 고쳐 불렀다가 오동(梧桐)나무가 번성하여 자연적으로 정자(亭子)를 이루었다 하여 오정리(梧亭里)라 고쳐 부르게 됐다.

1915년부터 1945년까지는 초계리(草溪里) 2구(區)라고 불렀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1가

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78명, 여자 75명으로 모두 15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모두 강원도 출신가구로 비교적 토속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황씨가 30가구, 최씨가 9가구,崔씨가 2가구로 황씨의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6가구, 기타 5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정지면적은 논 31ha, 밭 7ha, 임야 300ha, 기타 43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114두, 닭 24수, 오리 7수, 산양 9마리, 토끼 2마리, 개 61마리 등을 각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36대, 트랙터 12대, 콤바인 9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1년11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3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4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4년 4월에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41대, 냉장고 41대, 자가용 11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취사와 난방은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63년 3월에 총사업비 280만원을 들여 50㎡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30가구, 기독교가 1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71년 12월에는 처음 자본금 20만원으로 마을 공동구관장을 개설해 1985년에는 자산액 40만원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3년 7월에 마을 앞에 길이 24m되는 교량을 가설 했고, 1985년 2월에는 주민부담 20만원과 양회 100포를 지원받아 마을앞 교량 20m를 가설했다.

1993년 4월 1천7백만원을 들여 석문,초계와 함께 마을안길 143m(폭4m)를 포장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1천1백4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90m(폭3m)를 포장했다.

1994년 11월 사업비 9천5백80만원을 들여 34.9ha의 경지정리작업을 시작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1천4백만원을 들여 취입보 15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음력 1월 10일에 마을 뒷산에 있는 성황당에서 한해동안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지내는데 구전에 의하면 약 150년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다.

• 의식절차 : 일반제사와 같이 지방을 써 놓고 제물을 준비한 뒤 원관과 축관이 진행한다.

△ 마을제사 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켓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훑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울, 호도 등을 깨 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새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퇴되었던 식욕을 복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팥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무늬이 : 48장으로 된 화무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악단, 탄단, 섃파, 육백, 나이뽕뽕, 고스름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대대리(大垆里)

△ 위치 : 동쪽으로 송죽리와 봉호리, 서쪽으로 초계리와 접하여 있고, 남쪽으로 간성읍 상리, 북쪽에 오경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마을의 뒷산인 노구산(老牛山)이 마치 세마리의 큰 학(鶴)이 사이좋게 날개를 펴고 앉은 것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터(垆)라고 하여 '학터' 또는 학대리(鶴垆里)로 옛날부터 불리웠다. 그후 어음(語音)이 자주 변하여서 현재는 '한터' 또는 대대리(大垆里)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전하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마을 뒷쪽에 있는 노구산의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거북이가 사자 4마리를 등에 업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으며, 사자 4마리는 동서남북을 향하여 본 마을을 사수하는 형이라 했다. 그래서인지 조선 중엽때 교동리(校洞里)의 마을 주민이 몰래 숨어 들어와 교동마을을 향한 사자의 아래턱을 부수어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할미봉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전녀가 이봉우리에서 살다 늙어간 곳이라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선녀가 사용하던 장독모양의 바위가 아직 남아 있어 그 바위를 독바위라 부른다.
 그래서인지 본 마을은 아직까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다 오래 살며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법이 없는데 할미봉이 높아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다.
 1930년까지도 방축(防築)끝에는 산 기슭에 큰 늪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으로 변했다.
 방축동(防築洞)에는 조선 명종 원년(서기 1546년) 이전에 있었던 간성향교와 유적지가 있다. (향교는 1546년 간성을 교동리로 이전)
 최근 마을 아산주변에 청동기 유물들의 일부 발견되고 있어 청동기 주거지군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 대대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3가구가 살고 있고, 일명 '한대대리' 라고 부른다.
 인구는 남자 80명, 여자 86명으로 모두 166명이다.



대대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9가구, 경기도 2가구, 경북과 충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崔씨가 25가구, 金씨가 8가구, 李씨가 4가구, 馬씨가 2가구, 孫씨와 林씨, 南씨, 지池씨가 각각 1가구로 강릉崔씨 집성촌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5가구, 기타 8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8ha, 밭 7ha, 임야 130ha, 기타 20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30두, 닭 17수, 개 24마리 등을 각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20대, 트랙터 9대, 콤바인 7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68년 8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4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4년 10월에 개통돼 현재 하루 5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43대, 냉장고 41대, 자가용 11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

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 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7년 4월에 총사업비 3백50만원을 들여 99㎡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10가구, 천주교 5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 자본금 35만원으로 개설된 마을 공동구판장은 1981년 2월에 자산액 89만원에 달했으나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처음 자본금 20만원으로 시작한 마을금고는 1981년 38가구가 가입하여 자산액이 57만원에 이르렀으나 역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 사업으로는 1975년 4월에 자부담 20만원과 지원금 30만원으로 마을의 끝말에서 방축동까지 이르는 10m의 교량을 가설했고, 방축골에 위치한 소하천 400m를 지원금 2백만원과 자부담 40만원을 들여 정비했다. 또 1978년 11월에는 대대1리 국도에서부터 마을앞길 305m를 2백만원의 자부담과 700포의 양회를 지원받아 포장했다.

1991년 4월에 1천2백9십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포장 120m와 하수도 240m를 설치했다.

1992년 5월 3천3백6십만원을 들여 대대2리 삼거리에 있던 충혼탑을 이곳으로 옮겨 제단을 설치하고, 자연석과 조정수를 식재했다.

1995년 4월 9백1십만원을 들여 도수로 100m를 설치해 영농의 불편을 덜었다.

△ **마을신앙** : 음력 3월 3일에 마을의 성황당에서 한해동안 마을의 평온과 대풍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올렸는데 근래에 와서는 젊은 층의 반대로 없어졌다.

- 의식절차 : 무당들의 굿놀이 축원으로 시작되었었다.

△ 마을세시 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정월달에 길일을 택해 집안의 평안을 빚고 우환과 질병을 막아주는 텃제사를 지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잡기, 팻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율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유,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새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세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회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관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두놀이 : 48장으로 된 화두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만단, 섯파, 육백, 나이동뽕, 고스름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마을 냉천현황

• 옷물 : 마을 북서쪽 400m 지점에 있는데 물에 옷이 오르면 이물에 세번정도 씻으면 잘 낫는다고 하여 인근 마을에서도 많이 찾아 온다.

○ 대대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02가구가 살고 있고, 서쪽으로 46번국도와 남북으로는 동



대대2리 마을전경

해안 7번국도가 이어져 있어 1920년경 부터 세거리라고 불렸으며 그당시 12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1937년에 서쪽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해 복천 제방 약500m를 축조했다.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낙반사고로 5명의 인명피해도 있었다.

인구는 남자 155명, 여자 120명으로 모두 275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77가

구, 경북과 충남 각각 4가구, 경남과 전남, 부산 각각 3가구, 충북과 경기도 각각 2가구, 전북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崔씨가 27가구, 金씨가 26가구, 李씨가 15가구, 黃씨가 8가구, 鄭씨 7가구, 朴씨 6가구, 張씨가 5가구, 기타 8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4가구, 사무직 22가구, 상업이 14가구, 기타 42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21ha, 밭 3ha, 임야 10ha, 기타 45ha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55두, 닭 32수, 개 74마리 등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20대,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68년 8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104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0년에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의 속초와 대진간 왕복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문화시설은 TV 102대, 냉장고 104대, 자가용 34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중전의 연탄연료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0년 총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99㎡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가옥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70동과 연립주택이 12동이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16가구, 기독교 12가구, 유교 10가구, 천주교 2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1년도에 마을 동쪽 3반내에 하수도 100m를 정비했으며, 1979년에는 마을 남쪽 2반내에 하수도 120m를 정비했고, 1984년에 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하수도 100m를 정비했다. 1991년 4월에 1천6백만원의 들여 마을소도읍 가꾸기 하수도 727m와 보도블럭 447m, 마을안길포장 541m, 용수로 570m, 아스콘덧씌우기 등을 실시했다. 동년 11월 1천6백78만원을 들여 안길포장 721m와 하수도 160m를 설치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정월 초하루에 조상에 대한 차례와 웃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정월 달에는 길일을 택해 집안의 평안을 빌고 우환과 질병을 막아주는 텃세사를 지낸다. 기타의 풍속은 인근 대대1리와 초계리 마을과 거의 유사하다.

○ 송죽리(松竹里)

△ **위치** : 동쪽의 동해, 서쪽에 오정리와 대대리가 있으며, 남쪽에는 간성읍 봉호리, 북쪽에 반암리와 오정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에 송학동(松鶴洞)과 죽포리(竹泡里)라고 불리는 두 마을이 있었다. 송학동(松鶴洞)은 송림이 무성하고 앞뜰에 학(鶴)이 찾아온다고 하여 칭하였고 또 한곳은 북천하구에 자리잡은 곳으로 앞산인 마산(馬山) 기슭에 호수와 대나무가 있어서 죽포동(竹泡洞)이라 불리웠다고 하는데 죽포동이 옛적에 수해로 인하여 가옥이 유실된 후 1915년에 두마을을 합하여 송죽리(松竹里)로 부르게 되었다.

마을 앞에 있는 마산은 옛날에 용마가 났으나 용마(龍馬)를 탈 장사가 마을에 태어나지 않



송죽리 마을전경

아 용마가 의리상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여 마산(馬山)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6명, 여자 63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28가구, 경북 2가구, 충청도 2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文씨가 15

가구, 李씨가 6가구, 金씨가 4가구, 張씨와 姜씨가 각각 2가구, 朴씨와 白씨, 崔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1가구, 상업 4가구, 기타 7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정지면적은 논 66ha, 밭 7ha, 임야 70ha, 기타 59ha 등이다.

가축사육 현황은 소 107두, 닭 65수, 사슴 5두, 산양 5마리, 개 27마리 등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17대, 트랙터 5대, 콤바인,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34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0년에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씩 속초~대진간을 왕복 운행해 교통이 편리하다.

문화시설은 TV 36대, 냉장고 33대, 자가용 12대, 에어컨 1대,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낱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2년 3월 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 40㎡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11가구, 천주교 1가구, 기타 10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7년에 농경지를 정리했으며, 1984년 3월 마을자금 70만원과 양회 500포를 지원받아 마을안길 100m를 포장했다.

1996년 사업비 7백10만원을 들여 제방 50m를 보수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정월 초하루에 조상에 대한 차례와 웃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정월 달에는 길일을 택해 집안의 평안을 빌고 우환과 질병을 막아주는 덧제사를 지낸다. 기타의 풍속은 인근 대대1리와 초계리 마을과 거의 유사하다.

△ **마을 명승·고적**

마을에는 18세에 출로된 미망인이 있었는데 외아들과 시부모의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한평생을 마침으로 타일에 본받을 만하다고 하여 약 90년전 열녀비를 건립해 나라에서 열녀비와 효녀비를 마을 한곳에 정비하였으나 6.25동란에 모두 파손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 반암리(盤岩里)

△ **위치** : 동쪽에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오정리, 남쪽에 송죽리, 북쪽에 송포2리에 각각 인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이 마을은 해안이 돌아가는 모퉁이에 위치하였기에 옛적에는 돌구미 또는 회



반암리 마을전경

진리(回津里)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마을 지하에 암반이 있다 하여 반바우라고도 불리었다. 그후 마을 주변에 암석과 해중(海中)의 평평한 반석이 널려 있기에 반암리(盤岩里)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는 임진왜란 등 또는 국난이 있을 때 마다 신호의 역할을 하였던 높은 봉수봉(옛 正陽山)이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7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33명, 여자 129명으로 모두 26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70가구, 부산 2가구, 경남과 경기, 인천, 서울, 전남, 전북출신이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김씨가 19가구, 이씨와 장씨가 각각 8가구, 박씨와 유씨가 각각 4가구, 박씨가 3가구, 손씨가 2가구, 기타 30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3가구, 어업 24가구, 상업 11가주로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으며, 최근 피서철에 자가정에서 민박을 운영해 부업소득으로 생활이 부유한 편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2ha, 밭 13ha, 임야 102ha, 기타 9ha 등이다.

선박 보유현황으로는 1톤이하 6척, 1톤이상 5톤이하 6척, 6톤이상 10톤미만 2척, 10톤이상 1척으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6두, 돼지 20두, 오리 200수 등을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30대, 트랙터 3대, 콤바인 3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 하고 있다.

전기는 1964년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7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0년에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씩 속초~대진간을 왕복 운행해 교통이 편리하다.

문화시설은 TV 76대, 냉장고 70대, 자가용 19대,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 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2년 5월 총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 132㎡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3가구, 기독교 2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옥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77동, 연립주택이 1동 등이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4년 4월 자부담 50만원과 양회 1,000포를 지원받아 마을안길 200m(폭4m)를 포장했다. 1991년 7월 7천7백40만원을 들여 반암항 방파제 30m를 시설했고, 1992년 5월 1억1천7백90만원을 들여 방파제 18m를 축조했으며, 1993년 5월 1억5천2백80만원을 들여 방파제 18m를 축조했다. 1996년 3월 3천4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124m를 설치했고, 4월에 1천8백80만원을 들여 하수도 151m와 관로를 설치했다.

1995년 사업비 1천8백70만원을 들여 상수도시설 2,301m를 확장했다.

1996년 6월 사업비 3억3천6백만원을 들여 방파제 20m를 년차적으로 축조해 나가고 있다.

△ **마을신앙** : 지금으로부터 약200여년 전부터 치성(성황제)이라 부르는 토속신앙이 매년 1월 1일에서 5일 사이 새벽 4~5시에 성황당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지고 있다. 음력 4월에는 마을의 안녕을 비는 풍어제를 성대하게 지내며 3년에 한번씩 풍어제를 겸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반바우 후릿질 민속놀이

동해안 바닷가에서 후릿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어촌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1989년 반암리 이병규옹과 이창복, 박근식, 천영환씨 등의 고증으로 윤용수 거진읍장이 발굴, 이선국씨가 정리하고 지도해 1990년도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과 지도상을 수상했다.

• 구성 및 놀이과정 : 제1과장은 무녀들이 용왕제를 지내고 선주와 동네 주민들이, 마을안녕과 풍어를 기원한다. 어부들은 선수들의 지시에 따라 출어준비를 한다.

제2과장은 망꾼이 망대에서 고기매 발견신호에 따라 어부들이 후릿그물을 바다에 놓고 주민들이 바닷가로 모여든다. 제3과장은 선수의 지시에 따라 후릿꾼들이 노래를 부르며 후릿그물 발기를 잡아 당긴다. 제4과장은 조여진 후릿그물 속에서 산대로 고기를 퍼내어 지계에 옮기고 지계꾼은 해안가 명석 위에 쏜다. 제5과장은 명석에 쌓인 고기를 중심으로 풍어를 기뻐하는 어민들의 예환을 그리고 있다.

• 노동요

① 줄어 및 후릿그물 놓는 소리

〈가사내용〉 고기다 고기! 그물을 내려! 그물!

이물에 사람 발을 놓고 그물을 들어 발을 내려!

우리 배는 갈도 간다. 겨울 지나 봄이 오고

밝은 해가 솟아나네. 오는 고기 마중 가세.

노를 저어라. 돛을 올려라 고기떼가 변역인다.

(후렴) 지어- 지어- 지어- 지어- 지-어-

② 후릿그물 당기는 소리

〈가사내용〉 젊은 사람 나(나이) 많은 사람 잘도한다 잘도하네.

이물에 사람 살펴보고 가렵게 탕기도 빨리 탕겨.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일진광풍 물지마라 아까운 청춘 다 늙는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에-싼야 기운내기 손발시려 못하겠네.

에-싼야 잘도 달긴다. 잘도 당겨

후세미를 바짝취서 물밑으로 몰아오너라.

(후렴) 에-싼지 에-싼야 에-싼니

③ 고기를 퍼낼때 소리

〈가사내용〉 예라소-오 가래-로구나 가래 가래 로구나.

예라소-오 가래-로구나 먼데사람 보기 좋게

겉에 사람 보기 좋네 먼데사람 뜨기 좋게

후리는다 후리느니 물밑에서 고기가 올라온다.

이번 가래는 용왕님 가래요

이번 가래는 선주님 가래다.

(후렴) 예라-소오 가래-로구나.

△ 마을 명소현황

• 김득구의 묘

이 마을 출신 권투선수 김득구(金得九)는 동양라이프급 챔피언으로서 1982년 11월 14일 미국 "라스베가스"지에서 챔피언인 미국인 "레이 맨시니"와의 WBA라이프급 챔피언 타이틀전에서 후두부에 타격을 받고 사망했다. 묘소는 반암리 뒷산 기슭에 안장되었다.

• 정양산(正陽山) 불수지 : 반암리 마을의 서남방 800m 지점에 있는 해발 약 170m 높이의

정양산 정상에 있다. 해안에 면해 있으면서 남쪽과 북쪽 모두가 트여 있어 봉수시설 입지로 알맞은 곳이라 생각되는 곳이다. 이 봉수지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등의 고지리지 외에 조선후기의 각종 지리지에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13km 떨어진 술산(戌山-현내면 마차진리)과 남쪽으로 11km거리인 죽도(竹島-죽왕면 오호리)사이에 위치하여 신호 전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의하면 '봉수지 오대면 반암리부락(烽燧地 梧岱面 盤岩里部落)의 서 약 삼백간(西約三百間)의 산정(山頂)에 있을, 약 삼백간 사방석총 불완전(約三百間四方石塚 不完全)'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에도 원형을 유지해오다 약 40년 전에 봉수지가 있던 정상부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면서 방형의 봉수지는 완전 파괴되었다 한다. 이번에 현지 조사한 결과, 그 유지에는 소량의 석재와 토기편만 수습될 뿐 폐쇄된 군 대공진지가 자리하고 있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완전 멸실된 상태였다. 이 산의 정상부에서는 여지도서 간성군 봉수조(輿地圖書 杆城郡 烽燧條)에 '정양산봉수 재군북 십리 남을 죽도봉 북을 술산봉(正陽山燧臺在郡北十里南應竹島峰北應戌山峰)'이라 한 것과 같이 거진읍 및 죽도봉수, 마차진 봉수가 한 눈에 들어 오고 있어 기록대로 이곳에 봉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성군 문화공보실 황광을 전문위원도 약 40년전에는 이 곳에 마차진봉수대보다 더 확실하게 방형의 석축이 남아 있었다. (앞서 언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내용과 일치)고 하여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이 곳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봉수대를 완전 파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유적총람, 1998, 문화재연구소)

△ 마을세시 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햇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율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울,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피 되었던 식육을 복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대에는 더위를 이긴다고 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

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두놀이 : 48장으로 된 화두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반단, 섯따, 육백, 나이롱뽕, 고스름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송포리(松浦里)

△ 위치 : 동쪽의 동해, 서쪽에 석문리, 남쪽에 오정리, 북쪽에 자산리, 봉평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송포는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랫마을은 뒷산이 많이 누운 것 같은 형국을 하고 있으며 소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여 송마직리(松馬直里)라고 불리우다 후에 송림 앞에 늪이 있다하여 송호리(松湖里)로 개칭했다. 윗마을은 북방에 있는 와우산(臥牛山)의 뒷쪽으로 1km 상거한 자산천 옆에 2,000평의 큰 늪(浦)이 영조 22년(1789)까지 있었다고 하여 포남리(浦南里)라고 불리웠으며, 1915년 송호리와 포남리를 합해 송포리(松浦里)라 부르고 있다. 송호리는 송포2리로, 포남리는 송포1리로 각각 행정구역을 분리하였다.

○ 송포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50가구가 살고 있다.



송포1리 마을전경

인구는 남자 77명, 여자 99명으로 모두 17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46가구, 서울, 경기, 충남, 전북이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손씨가 9가구, 최씨가 8가구, 김씨가 7가구,崔씨가 6가구,尹씨가 3가구,張씨와 손씨가 2가구씩, 기타 1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7가구,

상업 3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3ha, 밭 14ha, 임야 100ha, 기타 39ha 등이다.

가축사육 현황은 소 65두, 개 66마리, 산양 42마리, 닭 32수 등을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21대, 트랙터 9대, 콤바인 5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 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2년 8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5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50대, 냉장고 50대, 자가용 9대,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중전의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4월 총사업비 250만원을 들여 60㎡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2가구, 기독교 3가구, 유교 1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옥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46동, 연립주택이 4동 등이다.

1992년 3월에 1천1백8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71m(폭4m)를 포장했다.

1993년 5월에 1천7백4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550m를 포장했다.

1995년11월 사업비 1천1백20만원을 들여 생터를 정비했다.

△ **마을신앙** : 옛날부터 음력 3월과 9월, 연2회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 성황당에서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내는데 일반제사 절차와 같이 지낸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천지조정은 곧물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하수라.

권륜산 낭택이 득떨어져 금강산에다 귀봉을 하였구나.

이산쓴지 3년만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나면 열네로구나.

이산쓴지 3년만에 알성금제하고

이산쓴지 3년만에 부귀공명하오리다.

이산쓴지 3년만에 딸을 나면 명마 낳고

이산쓴지 3년만에 닭을 나면 황제 낳고

이산쓴지 3년만에 소원성취 이루어지리다.

△ **냉천현황** : 냉정골의 냉천은 4계절 온도의 변화가 없으며 물의 온도는 섭씨 20°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이 물을 먹으면 냉이 없어진다고 전해지고 있다.

△ **기타 현황**

• 박인식(朴仁植)씨의 위업 : 송포리 출신 박인식씨는 1896년생으로 일정시 조도전대학

(早稻田大學)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청년문동을 전개하였으며 사재(私財)로 거진읍 자산리에 거진보통학교(巨津普通學校)를 건립하여 당시 어지방 청년들에게 수학(修學)의 길을 열어주어 기여한 공이 많아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아 왔다.

8.15해방 후에는 반공투사로서 선봉적인 활약을 하다가 46명의 애국동지들과 함께 원산형무소로 끌려 갔다가 무참히 사살 당하였기에 간성 와우산 기슭에 있는 반공의거순국비(反共義擧殉國碑)에 명기되어 있다.

△ 마을세시 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새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햇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물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울, 호도 등을 깨 부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세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퇴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태에는 더위를 이긴다고 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태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팔죽을 추어 먹으며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투놀이 : 48장으로 된 화투는 여러가지 규칙으로 약단, 만단, 섯따, 육백, 나이동통, 고스톱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송포2리

△ 위치 : 동쪽에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석문리, 남쪽에 반암리, 북쪽에 거진11리와 자산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송포2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63명, 여자 58명으로 모두 121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7가구, 서울 2가구, 충남과 경북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송씨가 10가구, 후씨가 4가구, 韓씨가 3가구,徐씨와 黃씨, 鄭씨가 각각 2가구씩, 咸씨가 1가구, 기타 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1가구, 어업 1가구, 기타 9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0ha, 밭 6ha, 임야 192ha, 기타 44ha 등이다.

가축사육 현황은 소 17두, 개 68마리, 돼지 50두 등을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고, 양계장에서 닭 35,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농기구는 경운기 15대,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 하고 있다.

전기는 1973년 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5월에 들어와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현재 3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TV 31대, 냉장고 30대, 자가용 10대,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는 종전의 연탄에서 탈피해 유류보일러와 LPG가스렌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1년 4월 총사업비 50만원을 들여 33㎡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 8가구, 기독교 3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5년 4월 양회 200포를 지원받아 자부담 1백만원을 들여 소하천 150m를 정비했고, 1978년 3월 지원금 250만원과 자부담 1백만원을 들여 마을 소하천 150m를 정비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1월에 송포2리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약 100년 전부터 행하였다고 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소머리나 돼지머리를 제물로 사용하였다.

△ **바위 등의 전설**

• 돌고개 벼락바위 :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아이가 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바위 밑에서 비를 피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집에서 연기가 솟으며 불이 나기 시작하여 소년은 “불이야” 소리를 치며 바위 밑에서 막 나왔는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어 한참 후 깨어보니 비를 피해 섰던 바위가 벼락에 맞아서 갈라져 있었다. 그때부터 그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 마을세시 풍속

• 음력 1월 1일 :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선조의 업적을 가르치고 듣는 등 엄숙하고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음력 1월 15일 : 정월보름, 더위팔기, 햇불싸움,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새벽에는 1년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부스럼과 잔병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생유, 호도 등을 깨무는 풍습이 있다.

• 음력 3월중 : 청명,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며 사초(莎草)하고 석물(石物)를 새운다.

• 음력 4월 8일 : 사월 초파일이라 하여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사찰별로 이루어진다.

•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 : 년중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여 감춰 되었던 식욕을 북돋기 위하여 그늘에서 하루를 즐긴다. 근래에는 더위를 이긴다하여 개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음력 8월 15일 : 추석(秋夕) 혹은 한가위로 추석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취업으로 대도시에 생활하는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일시에 귀성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 동지(冬至) :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 팥죽을 쑤어 먹으며 집안의 잠귀를 몰아내는 풍습이 있다.

• 화두놀이 : 48장으로 된 화두는 여러가지 규격으로 약단, 만단, 섯따, 육백, 나이롱뿔, 고스불 등으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 놀이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행성향이 높아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 거진읍 주민 미거주 마을 유래

○ 냉천리(冷泉里)

동쪽에는 석문리, 남쪽에는 간성을 탐현리, 서쪽에 수동면 고진동계곡, 북쪽에송강리와 용

하리가 있다.

대사찰인 건봉사(乾佛寺)가 있는 부락으로 관모봉(冠帽峰)과 건봉령(乾鳳嶺)에서 산비로이 흐르는 담고 찬 샘물이 사찰과 마을 중심을 흐르므로 냉천리(冷泉里)라 불렀다.

1989년도 민통선이 북상함에 따라 건봉사에 승려들의 거주가 시작됐고, 현재는 활발한 건봉사 복원사업으로 점차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냉천골은 송강리저수지 속조로 인해 지금은 많은 부분이 물속에 잠겼다.

• 건봉사지(乾佛寺址 지방기념물 제51호) : 신라 법흥왕 7년(520년) 아도화상에 의해 '원각사(圓覺寺)'로 창건되었다. 고려 공민왕 7년(1358년) 나옹선사가 중수하여 '건봉사(乾鳳寺)'라 개칭하였으며 조선 세조가 학열대사에게 명하여 어실각을 짓고 그 후 역대제왕이 원당(願堂)으로 삼았으며 부처의 치아진신사리가 이곳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9층 탑을 비롯한 7기의 탑과 48기의 부도, 31기의 비가 있었으나 6.25때 거의 파괴되었고 목조건물은 불이문(不二門) 하나만 남았다. 1990년 건봉사 복원계획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고 1991년부터 1996년까지 26억4천8백만원을 들여 팔상전지, 부도군지, 낙서암지, 극락전지를 정비하였고, 팔상전과 대웅전, 삼신각, 만일원, 동지전, 명부전 등 건물을 일부 복원했다.

• 건봉사지 부도(乾佛寺址 浮屠) : 높이 1.52m이며 세존영아탑(世尊靈牙塔) 옆에 있는데 8각대석 위에 구형탑신(球形塔身)과 팔모지붕이 일석(一石)으로 조성된 특이한 것인데 옥개(屋蓋)부분이 반으로 깨어진 채 올려져 있다.

• 건봉사지 31인등공탑(乾佛寺址 三十一人 騰空塔) : 신라 발징화상이 정선·양순화상 등 31명과 염불 만일회를 만들고 향도 1천8백28인이 자원하고 발신하여 신라 원성왕(元聖王) 3년(787) 도량 문밖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 아마다불이 관음·세지 두보살과 함께 자급연대를 타고 이르러 염불하는 대웅을 맞아 극락세계로 돌아 갔는데 이때 스님 31인은 육신등공(肉身騰空), 상품 상생하여 의복과 식량을 공급하고 염불향도 1천8백28명 중 9백13명은 단정히 앉은 채 왕생하고 18인은 상품중생에 31인은 상품하생에 왕생하였다고 전해오는데 이를 기념한 탑으로 높이 3m정도로 탑면에는 '三十一人 騰空遺骨紀念之塔'라 음각되어 있다.

• 건봉사지 와요지(乾佛寺址 瓦窯址) : 기와를 만든 톱2.2m, 높이 1.7m, 길이 10m의 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건봉사지 불이문(乾佛寺址 不二門 지방문화재자료 제35호) : 1920년 건립된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로 팔각지붕을 지녔다. 익공계 건물로 지붕의 4모퉁이에 용두(龍頭)가 있으며, 정면의 처마 밑에는 해강 김규진이 쓴 '불이문' 현판이 달려 있다. 기단은 장대석으로 사방을 둘렀고, 초석은 한변 길이 62cm, 높이 26cm의 장방형인데, 사면에 모를 죽였다. 초석간 거리는 정면 308cm, 측면 246cm이다. 기둥은 석주(石柱)와 목주(木柱)가 혼용되어 있으며, 석주는 높이 155cm로 하단은 방형으로 처석하고, 상단은 매출림수법이 가미된 원통

형이다. 이 부분에는 길이 94cm의 금강척(金剛尺)이 조식되어 있고, 상면에 원형의 돌출대를 마련하여 석주를 받고 있다. 천정에는 “불이문 중건단청 대시주(不二門重建丹靑大施主)”, “설암당 봉흔(雪巖堂奉欣)”, “불기 2955년 무진 4월일(佛紀二九五五年戊辰四月日)”라 묵서된 현판이 있다. 불이문 주변에는 나무아미타불석주, 불이문, 능파교비가 있다.

【참고문헌】 아세아문화사, 1977, 《(전통사찰조사기록집사찰발사지)》 :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5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건봉사지 석표(乾鳳寺址 石標) : 4각주형 화강암에 ‘용사활지(龍蛇活地)’ ‘방생장계(放生場界)’라 새기고 여러가지 불교의 문양(紋樣)을 조각한 두개의 석표가 좌우로 서 있고 많은 건물터의 축대만 남아 있다.

• 건봉사지 남무아미타불석주(乾鳳寺址 南無阿彌陀佛 石柱) : 3m×38cm×38cm의 방형(方形) 화강암 석주에 종서(縱書)로 ①南無阿彌陀佛 ②나무아미타불 ③佛紀 2955戊辰夏 ④大方廣佛華嚴經을 각면에 새기고 정상에 봉황 한마리를 조각해서 올려 놓은 것으로 1928년에 세웠다.

• 건봉사지 능파교비(乾鳳寺址 凌波橋碑) : 탑신의 크기 1.36m×63cm×23cm 비개(碑蓋)의 크기는 60cm×94cm×48cm이며 운파청안(雲坡淸眼) 전·서·전이다. 조선 숙종 34년(1708)에 세운 것이다.

• 건봉사지 능파교(乾鳳寺址 凌波橋) : 불이문을 지나 올라가다가 금당지(金堂址)가 있는 쪽으로 건너가는 계곡에 걸린 하나의 홍예(虹霓)로 된 것으로 약 30개의 홍예석으로 반원형의 홍예를 만들고 주위는 무사석을 쌓았다.

• 건봉사지 세존영아탑비(乾鳳寺址 世尊靈牙塔碑) : 조선 선조 38년(1604)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부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봉안하여 왔는데, 이는 자장법사가 당에 가서 부처의 치아와 사리를 봉안하여 통도사·월정사 등 각사에 분봉하였던 것을 임진왜란때 왜병이 통도사에 침입해서 강탈해 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비신(碑身) 1.83m×57cm×27cm 비좌(碑座) 82cm×1.03m로서 윤용선(尹容善, 1829~1904)설(撰), 박기양(朴箕陽, 1856~1932)서(書) 및 전(篆)인데 임비일(立碑日)은 확실치 않다.

• 건봉사지 세존영아탑(乾鳳寺址 世尊靈牙塔) : 높이 3.28m로서 기단은 8각을 기본형으로 하였는데 하대는 각면에 안상(眼象)을 음각하고 상부에 복연(覆蓮)을 양각하여 중석(中石)을 받았으며 상대는 양연(仰蓮)으로 받치고 각면을 두개의 장방형(長方形)으로 음각하여 나누고 그안에 1개의 안상을 음각하여 구형의 탑신을 받고 그위에 팔모의 옥개를 얹었는데 지붕은 물매가 몹시 급하며 상륜부(相輪部)가 옥개에 비해 뾰족하고 높아 일반적인 사리탑과는 다른 이형(異形)이다.

전탑일은 조선 정종 4년(1724)이다.

• 전봉사지 석가여래차상탑(乾鳳寺址 釋迦如來齒相塔) : 높이 1.73m인데 지대석 위에 복면으로 덮힌 3각의 받침을 두어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는 종형(鍾形) 탑신석을 올려 놓은 것인데 소박하면서도 무게 있게 보인다.

• 전봉사지 석가여래차상탑비(乾鳳寺址 釋迦如來齒相塔) : 월봉선사(月峯禪師) 상석이 선(撰)·서(書)·전(篆)한 것으로 조선 영조 2년(1726)이다.

• 전봉사 보림암지(乾鳳寺諸林庵地) : 보림암은 보림선사가 533년 창건한후 1523년, 1878년 중수하였으며 1880년 화재로 전소 되어 1881년 벽오, 화웅스님이 중건하였다. 1897년 학림, 용성스님이 중수 하였다. 보림암은 민통선 지역내에 위치하여 일제때 이후로 실재화인된 예가 없었으나 금번 조사에서 옛 기록대로 전봉사 서쪽 1.5km지점에 실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전봉사의 적멸보궁 서편으로 있는 계곡을 따라 1.5km 올라가면 두 갈래의 계곡이 나오는데 바로 좌편(남쪽)계곡으로 100m 정도 위쪽의 바위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암자터는 현재 기단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남북향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고, 북편 지역으로 일부 기단비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암자 건물에 있던 기단 앞에는 크고 작은 기둥형태의 초석 4기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 지역은 10여m 높이의 낭떠러지이고 그 아래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암자터에는 현재 기와가 깨어지지 않은 채 집집이 쌓여 있고 기둥으로 쓰였던 목재가 불에 타 있거나 썩어가고 있다.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자연적으로 내려 앉았다가 산불이 나면서 일부 목재가 불에 탔던 것으로 생각된다. 암자터 남쪽으로는 당시 모습 그대로의 굴뚝이 남아 있다. 현 규모는 100×100×190cm 정도이다. 주초석 및 건물터로 볼 때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굴뚝에서 남서쪽 11.5km 거리에 산신각터와 암자터에서 위쪽 30m거리에 암벽에 172×21cm크기로 방형의 음각선을 구획하고 그 안에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을 120자 정도로 음각한 글과 대형의 제단이 잘 남아 있다. 보림암지 암각문 1(칠성단)의 자경은 13cm×9cm, 8cm×8.5cm이다. 이십팔숙주천열○○강성군 중 중성○○공복국진군자정대군 북두제육북덕구족무곡성군 북두제사소구개득문백장○○명영 정성군 북두제칠수명장원화성군 좌보우팔삼태육성제성군군중(二十八宿周天列○○講星君衆衆星○○○北極眞君紫微大君北斗第六福德具足武曲星君北斗第四所求皆得文曲星君北斗第二躡難遠難巨門星君北斗第一子孫萬德食狼星君北斗第七壽命長遠破星君左輔右弼三台六星諸星君君衆)〈하단명문〉탁자시주 장국진 자석준 병준 질익준 경자칠일일 화주석대현 석수이○○수 송○○(卓子施主張國鎰子興俊秉俊臣相俊庚子七月日化主釋大賢石手李○○壽宋○○)암각문(산신단)은 남무산왕대신위(南無山王大神位)로 오른쪽에 똑같은 암각문이 있다. 암각문 3은 칠성계원 이재호 김중수 김인수 임문학 탁계명 조병환 함병수 최경무 김계진 황임현 임술사월일(七聖契員李在浩金鐘洙金麟壽林雲鶴卓桂明趙秉完咸炳守崔景無金成眞黃壬戌四月日)이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장항리(獐項里)

1950년 6.25를 전후하여 지역적으로 민가가 유리(淸離)하여 지금은 부락이 없어졌다.

IV. 현내면 연혁과 리별현황

1. 현내면 연혁과 리별현황

동해안 최북단 휴전선과 접해 있는 현내면은 원래 고구려 때에는 승산현(僧山縣) 또는 소물달(所勿達)이라 불렀고 신라 경덕왕 때에는 동산현(童山縣)으로 불리었는데 그 후 여산현(驪山縣)으로 개칭 되었을 때 수성군(守城郡)에 흡수되었다가 고려 때에는 다시 열산현(烈山縣)으로 갈리었고 멸호를 봉산(鳳山)이라 하였다.

그후 조선치국이 되면서 관제 개혁으로 폐현(廢縣)되는 동시에 현내면으로 개칭하여 간성군에 속했다가 1919년 고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북한에 있다가

6. 25동란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되

어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일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정리(法定里)는 10개리이며, 행정리(行政里)는 16개마을에 80개 새마을반을 갖고 있다. 38° 36' 51"을 경계로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현내면은 1957년 5월 12일부터 명파리, 배봉리, 화곡리, 마달리 등 4개 민통선 출입영농 마을을 갖고 있었으나 1958년 6월 4일부터 입주영농이 실현 되었다.

동해안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통일전망대와 화진포를 소재하고 있어 관광개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총면적은 92.61㎢이며, 북위 38° 30' 00"을 기준으로 대진리 앞바다에 어로한계선이 지나고 있다.



현내면사무소 전경

역대면장명단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鄭豪洙	1954.12.26	1955.11.21	
2	金雲成	1956. 1.13	1957. 1.24	
3	全昌壽	1957. 1.25	1957.11.29	
4	權秀敏	1957.12.13	1957.12.14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5	洪海水	1958. 2.28	1961. 3.17	
6	黃正炫	1961. 4. 3	1961. 6.20	
7	金 哲	1961. 6.30	1970. 4.13	
8	權五鎭	1970. 5.20	1972.12.31	
9	金鎭沅	1973. 1. 1	1973. 6.30	
10	權五鎭	1973. 7. 1	1975.12. 4	
11	黃甲龍	1975.12. 5	1977. 6.10	
12	咸正根	1977. 6.11	1978. 1.24	
13	李鎭健	1978. 1.25	1980. 3.24	
14	金鎭沅	1980. 3.25	1983. 3. 7	
15	黃基相	1983. 3. 8	1989. 7. 6	
16	權五勳	1989. 7.13	1994. 7.12	
17	咸永穆	1994. 7.13	1995.12. 9	
18	洪鍾哲	1995.12.10	1997. 2. 5	
19	黃在澈	1997. 2. 6	1998. 3.31	
20	李鍾敏	1989. 4. 1	현재	

현내면 마을 명칭 변천표

읍 면 별		리 명
1914년 까지	현재 및 8.15 해방시	
縣內面 (烈 山)		大伏津(大津), 烈山, 雲根, 馬直, 檢長, 蛇川, 明波, 道發, 茅亭, 仲坪, 竹林, 草津, 禾谷, 水達, 猪島津, 麻次津, 鐵桶, 培峰, 乾達 (19)
	縣內面	大津里, 鐵桶里, 草島里, 竹亭里, 山鶴里, 禾谷里, 馬達里, 麻次津里, 培峰里, 明波里, 猪津里, 劍藏里, 泗川里, 松峴里, 松島津里, 大康里 (17)
	縣內面	大津1~5, 鐵桶, 草島1.2, 竹亭1.2, 山鶴, 禾谷, 馬達, 麻次津里, 培峰, 明波里 (16)

◆ 16개 행정리별 현황 ◆

◎ 대진리(大津里)

△ 위치 : 대진리(大津里)는 동해안 최북단 면소재지이며, 동쪽은 동해, 서쪽은 마달리, 북쪽은 마차진리, 남쪽에는 초도리, 철통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진항포구 전경

△ 마을유래 : 처음엔 대범미진(大汎味津)이라 불렀고, 그후 안씨와 김씨가 개척하였다고 해서 안금리(安金里)라고 칭하다가 고려시대에는 여산현(羅山縣), 그후에는 열산현(烈山縣)에 속해 황금리(皇淸里 황구리)라고 불려왔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한나루(大津里)라 개칭 하였다. 그후 동해안을 따라 확장되는 신작로가 개설되고 1920년에는 고성군 현내면 소재지로 승격 하였으며, 한나루(포구)에 축항을 쌓아 명실공히 조그마한 어항으로 축조되었고, 1925년부터 동해 북부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어 1935년에 개통을 보게 됨으로서 어항을 모체로 풍부한 수산자원(참어, 정어리)과 농산물을 원산으로 수송케 됨으로써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1945년 8.15해방 이후 1952년까지 북한 공산치하에 있었고, 그동안 6.25로 인해 철도는 파괴되고 이 마을의 200여호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해 폐허가 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대한민국 행정권이 수복되어 경향 각지에서 이곳에 피난민과 전재민이 일시에 많이 몰려 대진리 일원만 9,000여명으로 늘어 대진 1,2,3리 분할 관할 하였고, 1973년에는 행정구역 조정상 2개리를 늘려 대진4, 5리로 분할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대진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6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51명, 여자 278명으로 모두 529명 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16가구, 경상도가 15가구,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5가구, 충청도와 이북출신이 각각 3가구씩, 기타 13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는 김씨 42가구, 박씨 21가구, 최씨 20가구,鄭씨와 柳씨가 각각 10가구씩,崔씨 7가구,姜씨 5가구, 기타 45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을 보면 어업이 70가구, 농업이 14가구, 상업이 11가구, 공업이 1가구, 기타 64가구로 비교적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은 편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8ha, 밭 5.2ha, 임야 55ha로 경지가 적다.

농기구는 경운기 6대, 이앙기 3대로 정운기가 영농의 중요한 기구로 사용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19척, 1톤이상~5톤미만 28척, 5톤이상~10톤미만 5척, 10톤이상 1척을 보유 대진항에 소재를 두고 인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8두와 개 11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1978년 9월 18일에 개통된 후 속초와 대진항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전화는 1965년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16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60대, 냉장고 160대, 자가용 15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9월 25일에 총 8백만원을 들여 전경 30평으로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으나 현재는 주민의 이용도가 낮은 편이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유교가 43가구, 불교 28가구, 기독교 15가구, 천주교 4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8년 9월 면도금계획 사업으로 대진1리 중심가에 있는 하천 양쪽을 석축으로 공사하여 노폭 3m가량의 마을안길을 만들었으며 1982년 주택 중심가에 있는 마을안길 120m를 총공사비 1백70만원을 들여 시멘트로 포장했다. 또한 1984년에 해안진입로 150m를 총공사비 2백만원을 들여 시멘트로 포장했으며, 대진1리 중심가에 있는 하천 노폭을 3m에서 4m로 넓혀서 1984년도에 안길을 포장했다.

1993년 9월 사업비 1천1백40만원을 들여 하수도 115m와 변함 1개를 설치했다.

1996년 11월 사업비 1억6백만원을 들여 암거 200m과 배수관 20개소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동네치성이라고 부르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5일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내려오던 의식으로 뱃고사, 풍어제 등 마을 주민의 무사안녕을 빌었다.

• 의식절차 : 차례대로 분향을 하면서 마을 전체의 소원성취를 빌고 축문을 읽은 다음 마을 주민의 소원성취를 비는 뜻의 분향을 하고 제를 지낸다.

△ **산, 바위 등의 전설**

• 너래골 :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말로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 **진 등** : 수복 이후부터 내려오던 길로서 길이가 약 3km 정도의 산등선으로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으며 길이가 길어서 진등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한다.

• **뒷 불** :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로 대진항쪽을 안으로, 등대 능선 이웃 해안을 뒤로 생각하여 등대 능선 북쪽에 위치한 해안 모래사장을 뒷불이라 칭하고 있다.

• **신촌마을(새마을)** : 6.8재해 구호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부락.

○ 대진2리

△ **마을유래** : 대진리는 지리적으로 바닷이 많아 칠동기에는 적삼옷을 입고도 모진바람을 이겨내기 어려우나 대진2리는 지리적으로 분지처럼 형성되어 유난히 따뜻하여 속칭 양지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4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236명, 여자가 227명으로 모두 46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19가구, 경상도가 10가구, 이북이 12가구, 전라도가 3가구, 경기도와 충청도가 각각 2가구씩, 기타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42가구, 홍씨가 25가구, 최씨가 8가구, 박씨가 5가구,鄭씨가 6가구, 기타 6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50가구, 상업이 36가구, 농업이 10가구, 공업이 2가구, 기타 51가구 등으로 많은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9ha, 밭 2.8ha, 임야 40ha로 임야가 많다.

농기구는 경운기 10대, 이앙기 4대로 경운기가 영농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21척, 1톤이상~5톤미만 39척, 5톤이상~10톤미만 7척, 10톤이상 1척을 보유, 대진항에 소재를 두고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17두와 개 10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1978년 9월 18일에 개통된 후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사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전화는 1965년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149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49대, 냉장고 149대, 자가용 25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43가구, 유교 24가구, 기독교 16가구, 천주교 8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84년 5월에는 총사업비 1천8백30만원을 들여 위판장 길이가 100m되는 축항을 축조하

여 선박이 한진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1992년 11월 사업비 1천4백40만원을 들여 옹벽 56m와 하수도 70m를 설치했다.

○ 대진3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7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278명, 여자가 310명으로 모두 588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43가구, 경상도가 24가구, 충청도가 3가구,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2가구씩이며, 기타 2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35가구, 이씨가 26가구, 박씨가 19가구, 최씨가 9가구, 홍씨와 홍가 각각 6가구씩, 기타 6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87가구, 상업이 46가구, 농업이 8가구, 기타가 35가구 등으로 많은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0ha, 밭 4.5ha, 임야 45ha로 임야가 많다.

농기구는 경운기 4대,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이앙기 2대로 경운기가 영농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7척, 1톤이상~5톤미만 38척, 5톤이상~10톤미만 5척 등 비교적 소형선박으로 대진항에 소재를 두고,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7두와 개 13마리, 닭 15수, 산양 7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1978년 9월 18일에 개통된 후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전화는 1967년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176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76대, 냉장고 176대, 자가용 41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65가구, 유교 43가구, 기독교 27가구, 천주교 7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5월에 총공사비 2백96만원을 들여 건평 22평의 새면벽돌조 스타브 건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1985년도 명태 672,000kg, 오징어 30,000kg, 양미리 213,000kg, 도루묵 5,000kg, 문어 219,000kg, 이면수 176,000kg, 잡어 668,000kg 등 연안조업이 가계운영의 주소득원이었으나 최근 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1년 3월 지원액 57만원과 자부담 66만원을 들여 5m의 교량을

가설했으며, 1983년 12월 8일 총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 바운진입로 195m를 시멘트 포장했다. 또 주민부담 86만원을 합한 총사업비 1백80만원을 들여 농로 150m를 개설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천1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500m포장, 하수구 60m를 설치했고, 동년 9월 9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10.105a를 포장했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리조종은 황하수라.

사방을 둘러보니 천하에 명지구나.

이요쓰고 3년만에 아들나면 효자가 나고 딸을 나면 열녀가 나고

이요쓰고 3년만에 딸이 나면 용마가 나고 개가 나면 천삼살이나고

어~아 달구야.

○ 대진4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2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168명, 여자가 178명으로 모두 34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0가구, 경상도가 19가구, 경기도와 이북출신이 4가구씩, 전라도와 충청도가 각각 2가구씩이며, 기타 3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숲씨가 38가구,李씨가 16가구,朴씨가 12가구,崔씨가 7가구, 徐씨가 4가구, 기타 4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49가구, 상업이 12가구, 농업이 6가구, 기타가 57가구 등으로 많은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7ha, 밭 1.4ha, 임야 8.0ha로 임야가 많다.

농가가 6가구로 경운기 2대가 영농의 주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5척, 1톤이상~5톤미만 9척, 5톤이상~10톤미만 2척 등 비교적 소형선박으로 대진항에 소재를 두고,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1두와 개 11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1978년 9월 18일에 개통된 후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전화는 1967년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124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24대, 냉장고 124대, 자가용 19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42가구, 기독교가 31가구, 유교 12가구, 천주교 6가구 등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6월에 총사업비 2백70만원을 들여 건평 16평의 세멘벽돌조 스라브 건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새마을사업 실적은 1976년 1월 30일에 지원금 50만원과 기부금 12만원을 들여 3반과 4반 사이의 하수구 62m를 정비했고, 1980년 9월에는 대진4리 농로 100m를 정비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1천1백3십만원을 들여 옹벽 45m(높이 3.5m)를 설치했다.

○ 대진5리

△ **마을유래** :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하여 속칭 돈물이라 하였으며 이후 '똥골'이라 하기도 한다.

대진5리내로 통하는 이 마을 고개를 술미고개라고도 부르며 또 이 마을에는 채해구 호주택이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2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210명, 여자가 220명으로 모두 430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6가구, 경상도가 16가구, 경기도가 5가구, 충청도가 2가구, 전라도가 1가구 기타 8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31가구,李씨가 24가구,朴씨가 25가구,鄭씨가 6가구,徐씨가 5가구,吳씨가 4가구, 기타 4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66가구, 농업이 15가구, 상업이 8가구, 기타가 39가구 등으로 많은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2.2ha, 밭 2.1ha, 임야 2.0ha로 임야가 많다.

농기계는 경운기 4대, 이앙기 5대 등이 주요 영농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3척, 1톤이상~5톤미만 31척, 5톤이상~10톤미만 2척 등 비교적 소형선박으로 대진항에 소재를 두고,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12두, 개 20마리, 닭 20수를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1978년 9월 18일에 개통된 후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0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전기는 1965년에 들어왔으며, 전화는 1985년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12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28대, 냉장고 128대, 자가용 14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기독교가 47가구, 불교가 43가구, 유교가 21가구, 천주교가 12가구 등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에 전평 21평의 새면벽돌조 스라브 건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새마을사업 실적은 1974년 800포대의 시멘트를 들여 마을회관앞 도로 80m를 포장했고, 1983년에는 시멘트 1,400포로 마을안길(돈골) 140m를 포장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2천1백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16m(폭 3m)를 포장했다.

1996년 7월 사업비 1억9천4백만원을 들여 진입로 200m포장, 파제벽 190m를 설치했다.

◎ 철동리(鐵桶里)

△ 위치 : 편소재지로부터 1km 서쪽에 있으며, 동쪽에 초도리, 서쪽에 화곡리, 남쪽에 죽정리, 북쪽에 대진리와 인접되어 있다.

△ 마을유래 : 조그마한 마을에 뜻이 굳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하여 옛부터 철동리라 속칭을 명명하여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47명, 여자가 56명으로 총 10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8가구로 대부분 토박이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



철동리 마을전경

가구별 성씨분포는 숲씨와 나씨, 율씨가 각각 5가구씩이며朴씨가 4가구, 기타 9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8가구, 상업이 2가구, 기타 8가구 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4.3ha, 밭 11.6ha, 임야 195.7ha로 임야가 많다.

농기계는 경운기 18대, 이앙기 10대

등이 주요 영농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68두, 개 2마리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2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 보급이 늘어 2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28대, 냉장고 28대, 자가용 5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유교가 24가구, 기독교가 1가구 등으로 대부분 유교를 믿고 있는 가구가 많다.

새마을사업 실적은 1975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마을안길 920m를 50만원을 들여 농로화장공사를 했으며, 1984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길이 60m, 노폭 3m, 두께 20cm로 2백20만원의 사업비와 양회 900포로 포장했다.

1993년 10월 사업비 4백89만원을 들여 하수도 32m와 마을길 포장 1.8a를 포장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1천5백70만원을 들여 철동-화곡간 도로 343m(폭 4m)를 포장했고, 흙관 24m를 설치했다. 동년 11월 사업비 9백90만원을 들여 마을길 100m(폭 4m)를 포장했다. 1996년 사업비 1천7백만원을 들여 용수로 250m와 낙차공 2개소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성황당이라 불리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3일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지내는 의식으로 생기에 맞는 남녀 각 1명씩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이들은 3일전부터 부정한 것을 금하고 타인의 방문도 삼가하여야 하며 제삿날 음식을 준비하여 제물을 올린다.

△ **철동소류지** : 1945년경 축조된 소류지는 유역면적이 164ha, 제방길이 130m, 제방 높이 5m, 수심 3m 등으로 물리면적이 20ha이다.

◎ 초도리(草島里)

△ **위치** : 동쪽으로 동해, 서쪽은 철동리, 남쪽의 화진포와 죽정리, 북쪽의 대진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고려시대에는 이 지역에 섬이 많이 일명 샘동래 또는 9개소에서 샘이 솟는다 하여 구룡굴이라는 속칭이 생겼다 한다.

이 마을 앞바다의 섬에는 억새 따위의 새(草)와 수목이 많았으므로 초도(草島)라고 부르는 섬이 있었기에 '새일리'라는 칭하다가 진포(津浦)마을이므로 초진리(草津里)라고 불렀는데 1915년 행정구역 폐합 때에 초도리(草島里)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18년~1919년까지는 현내면 소재지였다.

○ 초도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9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168명, 여자가 149명으로 모두 317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75가구, 이북이 6가구, 경상도가 5가구, 충청도가 3 가구,



초도1리 마을전경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2가구가 살고 있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솔씨가 24가구,李씨가 18가구,朴씨와 權씨가 각각 5가구씩,申씨와 裴씨가 각각 4가구씩, 기타 3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53가구,농업이 18가구, 상업이 9가구, 건축업이 1가구, 기타 12가구로 대부분 영세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화진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 여름철 민박을 운영한 무업소득이 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8.2ha, 밭 5.0ha, 임야 104.6ha로 임야가 많다.

농가재는 경운기 12대, 트랙터 1대, 콤바인 1개, 이앙기 6대가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7척, 1톤이상~5톤미만 21척, 5톤이상~10톤미만 4척을 보유, 초도항에 소재를 두고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15두, 돼지 20두, 개 35마리, 사슴 38마리를 12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8년 7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2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93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8년 9월 18일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어 교통을 매우 편리한 편이다.

문화시설로는 TV 93대, 냉장고 93대, 자가용 28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여름 해수욕장의 찾는 피서객이 계속 늘고 있어 생활이 비교적 부유한 편이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45가구, 기독교가 17가구, 유교가 12가구, 천주교가 2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6년에 세멘벽돌조 스라브 전평 30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1985년 년간 어종별 어획량은 명태 52톤, 양미리 200톤, 미역과 갈이가 각각 80톤 광어 4톤, 전복 0.8톤, 성게 0.7톤으로 되어 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에 걸쳐 총액 1천만원을 들여 축항길이 100m의 항포구 시설을 갖추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2년 12월 저원금 1천1백8만원, 자부담 87만원을 들여 밤나무골

(원두골)의 소하천 540m를 정비했고, 이어 1973년에는 주민부담으로 마을에서 화진포 해수욕장에 이르는 300m길이의 도로를 포장했다.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군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의 노력으로 선착장 진입로 500m를, 1982년에는 300m의 공수골 농로를 각각 개설했다.

1992년 11월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용수로 500m와 저수지토사 15,000m를 준설했다.

1993년 10월 사업비 3백50만원을 들여 하수도 29.5m를 설치했다.

1994년 12월 사업비 5백60만원을 들여 화진포진입연결도로 75m(폭4m)를 확장했고,

1995년 5월 사업비 1억5천8백만원을 들여 초도항진입로 560m(폭6m)를 확장했다.

동년 11월 사업비 1억4천3백70만원을 들여 화진포순환 도로 500m를 확포장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8천6백97만원을 들여 시가지 차도695m를 0.5m씩확장하고 동년 8월 사업비 1억4천1백만원을 들여 방파제 12m와 TTP 99개를 시설했다.

1996년 8월 사업비 6천9백만원을 들여 초도항진입로 580m(폭 6m)를 포장했다.

△ **마을 특산물** : 광어, 전복, 성게, 미역 등의 해산물로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지금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마을신앙** : 해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마을 뒷동산의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옛날 마을 시초부터 지내오던 이 제사를 지낸 1972년 새마을사업을 제사를 중지하고 성황당을 철거 했었는데, 주민중 김성도와 장홍근씨가 성황당 건물을 다시 설치, 치성을 드리고 주민 대다수가 전과 같이 제사 지내기를 원하기에 1974년부터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위식은 삼헌, 축관 1명 및 동리 유지가 참석하여 거행한다.

△ 마을 세시풍속

음력 정월에는 널뛰기와 달맞이를 하였고, 2월에는 영동맞이라 하여 집집마다 정화수를 떠 놓고 소원을 빌었으며, 단오에는 그네뛰기, 6월에는 유두놀이를 각각 즐겼다. 유두배에는 뒷동산에 채를 쳐놓고 동리 일꾼들과 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각기 차려온 음식을 먹으며 즐겼는데 음식이 적거나 하면 이장을 시켜 다시 채려 오도록 하였고 일꾼들중의 대표가 음식을 검사하여 음식이 적거나 성의없는 집은 다음 해에 일꾼배정을 못받게 하였다고 한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집집마다 낱을 받아서 고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고 동짓달에는 팔죽을 쑤어 먹었다.

△ 회다지 노래

① 표 쓸때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 - 선소리 -

어허 달구야

이 산소름 쓰고 나면

- 뿔소리 -

어허 달구야

어허 달구야

아들이 나면 호자가 나고

어허 달구야

딸이 나면 열녀가 나고

어허 달구야

소를 때면 우마가 나고

어허 달구야

말을 때면 백마가 나고

어허 달구야

닭을 때면 봉이 나고

어허 달구야

먼데 사람 보기 좋게

어허 달구야

옆의 사람 듣기 좋게

어허 달구야

여러 상두꾼들 소리 맞춰

어허 달구야

잘해 주소 잘해 주소

어허 달구야

천년 집을 지어주소

어허 달구야

이 산소를 쓰고 나면

어허 달구야

3년만에 아들 낳고

어허 달구야

1년 뒤에 무지되어

어허 달구야

후손들이 잘될 걸세

어허 달구야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상두꾼들이 뒷소리를 따라 부르는데 일정한 가사는 없고 선소리꾼이 분위기에 맞게 생각하는대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사로 맥하여 부른다.

② 상여 나갈 때 부르는 노래

① 선소리 -

② 뒷소리 -

〈가사내용〉 어화님차 어화

어화님차 어화

임가친척 많다 해도

어화님차 어화

어느 누가 대신 가라

어화님차 어화

친구가 아무리 많다 해도

어화님차 어화

어느 누가 대신 가라

어화님차 어화

복망산천 멀다해도

어화님차 어화

대문 밖이 저길세

어화님차 어화

오늘 가면 언제오나

어화님차 어화

다시한번 뚫을 길을

어화님차 어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어화님차 어화

바늘 같은 약한 몸에

어화님차 어화

태산 같은 별이들어

어화님차 어화

저승사자 가자하니

어화님차 어화

아니갈 수 없는 구나	어화님차 어화
어린자식 버려두고	어화님차 어화
저승 길을 가자하니	어화님차 어화
슬프기가 한이없네	어화님차 어화
정든 집을 뒤에 두고	어화님차 어화
황천 길을 내가 가니	어화님차 어화
여러사람 발 맞추어	어화님차 어화
상두꾼들 잘 감시다	어화님차 어화

△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광대바위 : 이 바위 뒤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와 금구도에 있는 큰 소나무(현존)에 줄을 매어 놓고 광대가 줄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광대바위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바위 뒤에 있던 소나무는 1961년에 포부대가 주둔하고 벌목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 금구도(金龜島 거북섬) : 일명 거북섬이라고도 하는데 그 섬의 거북 머리부분이 동남쪽 대양을 바라보고 나가는 형용이라서 초도리(草島里)가 흉하지 못한다는 전설도 있으며 어느 때인지 연대는 모르나 섬 주위에 돌담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큰 성터와 같은 돌구조물이 있으며 자연석 높이 5m와 길이 13m가 섬의 북서쪽에 잘 남아 있다. 또 돌굴 있는데 속에는 태극형의 큰바위가 있었으며 한쪽은 잃어지고 현재는 반쪽만 남아있다. 굴 위에는 넓은 돌방석이 있는데 약 20년전까지도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고 거북섬에서 죽는 사람이 생길 경우 거북섬에 있는 명당자리에 묘를 쓸 수 있다는 전설도 있다.

△ 기타 사항

• 시온중학교 개설 : 1964년 현내면 초도리 218번지 1,800평을 초도리에서 회사하여 최 초 시온중학교가 개설되었으나 약 2년후에 없어지고 1967년에 중학교 설립이 추진되어 부지를 동네에서 기증하여 교사(校舍 임시건물)가 건축 되었으나 다음 해인 1968년 10월에 해일피해로 인하여 교실이 전과 뒀에 따라 지금의 대진중학교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폐교되었다.

• 이화여대 휴양소 : 1957년 초도리 남단 화진포 주변지에 이화여대 총장 박마리아가 이대하계휴양소(梨大夏季休養所)로 사용키 위해 주변 10ha의 산과 평지 그리고 해변 일대를 임대하여 5동의 별장을 짓고 매년 하계(夏季)에는 이대 교수단 및 학생들을 보내 교대 휴양하다가 1968년 7월 산학리 고성산(古城山) 정상에 3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나타난 이후 현재까지 활용지 않고 건물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수굴 소류지 : 일제시대 축조된 제방으로 유역면적이 15ha, 제방길이 50m, 높이 5m로 저수량 2,000톤이며 물리면적이 5.5ha 등이다.

○ 초도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9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142명, 여자가 167명으로 모두 309명이다.



초도2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71가구, 이북이 9가구, 경상도가 7가구,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2가구씩, 충청도가 1가구이며, 기타 4가구가 살고 있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홍씨가 25가구, 김씨가 18가구, 박씨가 8가구, 최씨가 5가구,鄭씨와韓씨가 각각 4가구씩, 기타 32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29가구, 상업이 13가구, 농업이 9가구, 건축업이 1가구, 기타 44가구로 대부분 영세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화진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 여름철 민박을 운영한 부업소득이 늘고 있다.

△ 일만현황 : 경지면적은 논 13.5ha, 밭 2.3ha으로 경지면적이 적은 편이다.

농기계는 경운기 13대, 트랙터 3대, 콤팩트 4대, 이앙기 6대가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10척, 1톤이상~5톤미만 18척, 5톤이상~10톤미만 2척을 보유, 초도항에 소저를 두고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20두, 개 36마리를 14가구에서 각각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왔으며, 전화는 1985년 2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 보급이 늘어 96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8년 9월 18일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어 교통을 매우 편리한 편이다.

문화시설로는 TV 96대, 냉장고 96대, 자가용 8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여름 해수욕장의 찾는 피서객이 계속 늘고 있어 생활이 비교적 부유한 편이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유교가 24가구, 기독교가 15가구, 불교가 12가구, 천주교가 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1년도에 세멘벽돌조 스라브 전평 30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1985년 연간 어종별 어획량은 명태 2톤, 밀치 4톤, 양미리 50톤, 참어 10톤을 어획 했지만 매년 연안자원이 줄어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

1993년 10월 사업비 1천4백60만원을 들여 하수도 177m와 맨홀 3개소를 설치했다.

1995년 11월 사업비 4천5백만원을 들여 보도블럭 420m와 경계블럭 455m를 설치했다.

1996년 11월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진입로 131m포장과 하수관 40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이면 마을전세의 태평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다에는 풍어, 농사는 풍년되기를 삼가 축원하는 성황제를 마을 성황당에서 지낸다.

• **의식절차** : 2개리 리장이 제주가 되어 생기를 맞춘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 죽정리(竹亭里)

△ **위치** : 동쪽으로 화진포(거진읍 화포리 옛 장평 長坪)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거진읍 산북리, 남쪽으로는 거진읍 원당리, 북쪽으로는 산학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마을유래** : 이 마을은 동북쪽으로 열산현(烈山縣)매의 고성산(古城山), 서북쪽으로 노인산(老人山) 정상을 경계로 마을 중간평야지대로 증명천이 화진포로 흘러 내려 마을 앞에는 굴전옥담의 1,000석 두루가 있어 옛부터 재해가 없는 부촌으로 이름나 있다.

마을 남쪽에는 초록빛 수려한 화진포가 있고 마을에는 작은 야산이 밀림을 이루고 있어 골을 이룬 곳에 여러개의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죽정리 마을전경

조선 연산군 때에는 화진포 주변의 '마장뿌리' 산봉우리에 세운 모화정(茅花亭)이 있어 화전(花鰲)놀이와 휴식처로 활용한 관제로 현 죽정1리를 모정리(茅亭里)로 불러 왔고, 현재 죽정2리 인 증명리(仲坪里), 도발리(道發里), 죽림리(竹林里) 등 3개리와 모정리(茅亭里)를 합쳐 1915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죽림리(竹林里)라는 '죽(竹) 자와 모정리(茅亭里)라는 정

(亭) 자를 합쳐 죽정리(竹亭里)로 병명되어 오다가 일제시대에는 행정구역 개편시 본마을 중간으로 흐르는 중평천을 경계로 동쪽은 죽정1리, 서쪽은 죽정2리로 개편 되었다.

죽정1리(옛 모정리 茅亭里) 일대에는 선사시대나 고구려 때의 북방식 지석묘로 보이는 고인돌이 2km에 걸쳐 산재해 있으며 용수구미라는 곳에서는 10여년전 돌도끼, 기왓장, 돌칼 등의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사실이 있다.

○ 죽정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73명, 여자가 64명으로 모두 137명이다.



죽정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9가구, 경기도와 충청도가 각각 2가구씩으로 강원도 토속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손씨가 10가구,崔씨가 9가구, 권씨와 조씨가 4가구씩,李씨가 3가구, 기타 1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5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7가구 등으로 대부분

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29.5ha, 밭 15.8ha, 임야 20ha 등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23대, 콤팩트 3개, 이앙기 16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29두, 돼지 743두, 개 23마리, 닭 30마리, 사슴 20마리, 오리 15수, 산양 2마리 등을 30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8년 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43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8년 9월 18일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어 교통을 매우 편리한 편이다.

문화시설로는 TV 43대, 냉장고 43대, 자가용 6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37가구, 기독교가 5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68년 3월에 1백만원의 사업비로 세현벽돌조 스타브 건평 16평의 현대식 건

물로 신축했다. 1975년 4월에는 1백50만원을 들여 전평 50평에 스테트 지붕으로 마을 창고를 신축했다.

마을금고는 1972년 1월에 처음 자본금으로 1백60만원으로 설립하여 1985년도에는 1천6백만원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8년부터 1980년 3월에 걸쳐 400만원의 자부담과 주민 인력지원으로 마을에서 화진포 주변에서 신개천까지 2,000m되는 농로를 개설했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마을안길 3개소, 총 570m를 포장했다. 또한 주민 자부담으로 10년 2,000m의 농로를 개설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1천4백7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24m를 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1천6백70만원을 들여 마을길 440m(폭 3m)와 80m(폭 2.5m)를 각각 포장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1천8백만원을 들여 농로 315m(폭 3m)를 포장했다.

1996년 4월 1천만원을 들여 용수로 282m와 박스공 2개소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매년 부락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액(잡귀신)을 몰아내 우환을 없애며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음력 정월 정일을 택하여 성황제를 지내는데 의식절차는 쟁기에 밧고 유능한 원로를 재판을 삼고 재판이 좋은 날을 택하여 제일을 정하며 도가를 뿔아 돼지고기와 과일, 떡 등의 음식을 준비하게 하여 제사를 지낸다.

〈축문〉

維歲次乙丑正月庚寅朔初八月丁酉幼學○○○敢昭告于

城隍之神 鑑此一洞於千萬沙嶺如月如日

明若觀火 何事不知 惟我羣生

今逢新年 所願皆遂 驅逐邪魔

萬福必臻 戶口漸增 人口旺盛

五穀豐登 六畜繁殖 遐邇登聞

上下和睦 謹以酒果 脯醢薦薦于神

伏惟尊靈 上察下臨 庶幾欽格尚饗

△ **마을 세시풍속** : 해마다 8월 보름이면 초동에 불을 피워 달맞이 하면서 마을 뒷산에 올라 달이 뜨는 방향에 따라 뽕불, 죽불, 밤불으로 구분하여 뽕불로 달이 뜨면 그해의 농사는 대풍이고, 죽불로 뜨면 농사가 안되는 징후로, 그리고 밤불로 뜨면 농사가 중간정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는 고유의 풍습이 있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예레야 다루야 네가 가면 언제오나 예레야 다루야

아~

어 - 어 - 다쿠야

열너가 나면 호자가 난다

저기 노인산 줄기가 내려온다.

△ 산, 바위 등의 전설

• 보랭골 : 옛날에 끝짜기에 4 ~ 5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어 조용한 데 다 원시림이 우거진 관계로 피서지로 알려져 있어 여름이면 죽정 부락민들이 개를 잡아 보 신탄을 해 먹으며 즐겼다고 하여 보랭골이라 부른다.

• 마장뿌리 : 마을 뒤쪽 화진포 호수 주변인데 옛날 이곳에서 백마가 났다는 전설이 있다.

• 청용뿌리 : 화진포 이승만 대통령별장 부근으로 옛적에 이곳에서 청마가 났다는 전설이 있다.

• 모화정(茅花亭) : 마을의 동남쪽에 있는 '마장뿌리' 화진포 주변의 산봉우리에 조선 연산군 때 세워진 정자로 옛날에는 문인들이 이곳에서 시(詩)를 읊미하여 소요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건물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다.

• 마을 동쪽의 청용뿌리에서 청룡이 나와 충신별을 지나 산하리와 용너머고개로 지나 갔다는 전설이 있다.

• 죽정1리 마을에 맨 처음으로 鄭씨가 살았고 다음으로朴씨가 살았으며 崔씨가 들어온 후에는尹씨, 鄭씨 순으로 마을에 거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옛날 현 죽정국민학교 앞에 安씨 부자가 살았는데 집 앞에 3갈래 길이 있어서인지 언제나 이 집에는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한다.

드디어 걸식 손님 지중에 머느리가 실종이 난 어느날, 하루는 객승이 시주를 부탁하자 머느리는 집에 걸식 손님이 없게 해 달라고 하였다. 시주를 받은 중이 鄭씨 집 앞에 있는 늪을 매워 머리라고 가르쳐 주었고 머느리의 부탁을 받은 남편이 鄭씨 집 앞의 산을 깎아 그 늪을 매워버리자 거짓말 같이 손님이 발을 끊었는데 곧이어 집안 마저 시들해 지더니 끝내는 망해 버려 지금 현재는 마을에 살고 있는 안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묘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박씨가 많이 살았으나 현재는 박씨도 전혀 없으며 마을 주변에는 100개 이상의 관리하는 사당 없는 박씨 성을 가진 묘가 많이 있다.

△ 냉천현황

• 냉장개미(냉천, 약수터) : 죽정1리 마을에서 2.5km 동쪽의 화진포 주변으로 화진포해수욕장과 화진포를 끼고 있는 곳으로 옛부터 동해와 화진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하여 냉장개미라 하며 계속 솟아오르는 냉수 약수터가 있어서 피서지로도 유명하다.

△ 속칭 이름

• 불당개미 : 신라시대에는 마을에 불당이 있었다고 하여 불당개미라고 불렀다.

- 용수개미 : 옛날에 용이 화진포에서 하늘로 솟았다하여 용수개미라고 불렸다.
- 구터 : 마을 남쪽의 골짜기로 옛날 큰 재난이 있을 때 바다 이곳에 마을 전체 주민이 피신을 하였다고 한다.
- 행금터 : 마을 동쪽에 있으며 옛절에 어른들이 이곳에 행금을 가져와 놀았다고 한다.
- 송신벌(냉장골과 붙어 있다) : 마을의 북쪽에 있으며 옛날 이곳에서 장군이 났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

△ 마을 명승현황

- 마을 동쪽에 있는 줄벼머리의 뒷산, 즉 죽정리 산1번지에는 1940년초에 원산 명사십리에서 철수한 서양인들이 별장으로 신축한 5동의 건물이 있는데 화진포 휴양지로 사용했다.
- 죽정리 유물산포지(竹亭里遺物散布地) : 이 유적은 화진포호수 중심부의 서편에서 동편으로串처럼 튀어나온 야산 능선상의 지역, 그리고 이곳의 북쪽에 서편으로 내탄되어 있는 지형의 산록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주변에는 죽정리 지석묘군이 함께 하고 있어 큰 범위의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야산 능선상의 지역에서는 석집과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내탄한 산록의 경작지에서는 빗살무늬 토기류와 갈돌, 석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경작지에서의 유물들은 신석기시대의 특징을 가진 것들인데 또한 주변 지역이 임지상 청동기시대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최숙경, 1962, 《고성군현내면의 선사시대유적》, 백흥기·지현병, 1992, 《강원영동지방의 선사문화연구》Ⅱ,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죽정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5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84명, 여자가 84명으로 모두 17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9가구, 경기도가 2가구 등이 강원도 토속적인 문화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崔씨가 13가구, 鄭씨가 10가구, 李씨가 8가구, 金씨가 5가구, 尹씨가 4가구, 朴씨가 2가구 등이며 기타 9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9가구, 기타 12가구 등이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58.1ha, 밭 29ha, 임야 206ha 등이다.

농기계는 경운기 37대, 트랙터 5대, 콤팩트 9개, 이앙기 23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87두, 돼지 120두, 개 5마리, 닭 16마리, 사슴 6마리, 오리 55수



죽점2리 마을전경

등을 34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8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5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9년 9월에 개통돼 현재 하루 108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어 교통을 매우 편리한 편이다.

문화시설로는 TV 51대, 냉장고 51대, 자가용 15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

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44가구, 유교가 7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금고는 1973년 3월에 처음 자본금으로 1백60만원으로 설립하여 1985년도에는 52가구가 가입한 상태로 자산액이 1천6백만원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50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92년 4월 사업비 4천4백81만7천원을 들여 마을길 468m(폭4m)과 42m(폭1m), 활판길 20m, T형축구 196m, L형축구 180m, 구거 5.5m등을 설치했다.

1992년 9월 사업비 4천1백만원을 들여 용수로 60m를 설치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6백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92m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음력 1월에 마을 성황당에서 마을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성황제를 지내는 데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 **대장동 소류지** : 일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제방길이 86m, 유역면적 10ha, 물리면적 18ha로 1980년 일부 보수했다.

◎ 산학리(山鶴里)

△ **위치** : 동쪽에 초도리, 서쪽에 화곡리, 남쪽에 죽점리, 북쪽에 철동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산학리는 원래 두 모퉁이로 나뉘어져 있어 옛 운근리(雲根里)를 고쳐서 산학리(山鶴里)와 열산리(烈山里)가 있었다.

고려 때 여산현(驪山縣) 다음인 열산현(烈山縣)의 소재지가 열산리(烈山里)에 있었는데 조선시대 관제개혁으로 폐현(廢縣)되는 동시에 간성군에 속하고 현내면으로 개칭된 후 1915년



산학리 마을전경

행정구역 폐합으로 두 부락의 '산(山)'자와 '학(鶴)'자를 따서 산학리(山鶴里)로 붙였는데 1914년까지는 현대면 소재지이기도 하였다.

마을 뒤편에는 고려 초에 만든 것으로 전하는 주위 약 12m 정도의 성지(城址)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죽고개 봉화봉(烽火峰)에서 횡불로 신호하면 이곳에서 간성 고성산으로 연락하였다고 한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82명, 여자가 69명으로 모두 151명 등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5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3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는朴씨가 16가구, 金씨가 9가구, 李씨가 6가구, 高씨와 宋씨, 黃씨가 각각 3가구씩, 白씨가 2가구 등이며, 기타가 6가구 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2가구, 상업이 2가구, 기타 4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6.1ha, 밭 43.3ha, 임야 232.2ha 등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35대, 트랙터 2대, 콤바인 4개, 이앙기 16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사육 현황으로는 한우 101두, 개 56마리, 사슴 3마리, 벌 20군, 산양 5마리를 30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8년 8월에 들어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4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48대, 냉장고 48대, 자가용 12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대진에서 까달리까지 1987년 7월10일 개통돼 매일 4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유교가 23가구, 불교가 14가구, 기독교 3가구, 천주교 2가구 등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3년에 세멘떡돌조 스라브 40평의 현대식 건물로 다시 신축했다.

마을금고는 1972년 4월에 처음 자본금으로 20만원으로 설립하여 1985년도에는 35가구가 가입한 상태로 자산액이 2백50만원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2년 4월 지원금 54만원 및 자부담 25만원을 들여 산학리 3.4반을 연결하는 교량 10m를 가설했으며, 1984년 2월 20일 총공사비 5천6백만원을 들여 마을 안길 1,080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2년 5월 사업비 1억8천2백만원을 들여 산학-죽정간 도로 819m(폭5.5m)포장, 석축쌓기 559m(높이 2m), 옹벽 368m, 암거형 교량 6.3m(폭 3.5m)를 설치했다.

1992년 11월 사업비 8백4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포장 138m, 휴관 33m, 명출 2개소를 설치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1천4백50만원을 들여 마을길 256m(폭 3m)와 150m(폭 2m)를 포장했다.

1994년 4월 산학-죽정간 도로 217m포장, L형측구 218m, 옹벽 222m, 석축 427m, 암거형 교량 5.4m를 설치했다.

1996년 7월 사업비 4천9백70만원을 들여 산학-죽정간 도로 670m(폭 4m)를 포장 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를 매년 음력 1월초 봉화터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의 번영과 가정의 행운을 빌며 재난이 없기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마을의 최고령자가 제를 올리고, 차린 음식은 마을사람 모두가 먹는다.

△ 속칭이름

• 성제고개 : 옛날 성을 쌓았다고 하여 성제고개라 한다.
• 봉화터 : 옛날에 켓불로 현내면 고성산과 봉화산, 간성 고성산과의 봉화를 올리던 곳을 말한다.

• 소마니골 : 마을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

• 분모골 : 마을 동북쪽

• 사창골 : 마을입구 동쪽

• 행상골

△ 마을 명승현황

• 외술배기 : 죽정리, 산학리 경계지점(중두루)인 길 모퉁이에 조선시대에 현령권모(縣令 權某)의 공덕비(功德碑)라고 전하는 비(碑)가 고송(古松)과 함께 남아 있다.

• 고성산성(古城山城) : 고려초 축성으로 전하는데 주위는 약 12m가 남아 있었으며 주둔 군부대의 방호시설에 의해 일부 훼손 되었다.

• 군수 권익룡 영세불망비(郡守 權益隆 永世不忘碑) : 마을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고 구전에 의하면 비석을 1반으로 옮기면 1반이 궁(窮)하고 2반으로 옮기면 2반이 궁(窮)하여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협의하여 현위치에 세웠다.

△ **정흥동회 소류지** : 상·하소류지로 나뉘어 있으며 제방길이가 80m와 50m이며, 동리면

적이 8ha로 1968년 개보수 됐다.

◎ 화곡리(禾谷里)

△ 위치 : 동쪽에 철동리와 산학리, 서쪽에 수동리, 남쪽에 산북리, 북쪽에 마달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부터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서 버드네라고 불려오고



화곡리 마을전경

있으며, 군량(軍糧)과 명기창고(兵器倉庫)가 있었다고 하여 창대리(倉臺里)라고도 부르며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농작물과 목축의 소득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 화곡리(禾谷里)라 부르게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58명, 여자가 67명으로 모두 125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1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윤씨가 8가구,李씨가 7가구, 吳씨가 4가구, 朴씨가 3가구, 嚴씨가 2가구이며, 기타 8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29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2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9.2ha, 밭 22.8ha, 임야 1,005ha 등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30대, 트랙터 5대, 콤팩트 2개, 이앙기 16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183두, 개 38마리, 닭 51수, 벌 32군 등을 49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1년 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3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2대, 냉장고 32대, 자가용 2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대전에서 마달리까지 1987년 7월10일 개통돼 매일 4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12가구, 유교가 8가구, 기독교 2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1년에 세멘벽돌조 스라크 40평의 현대식 건물로 다시 신축했다.

마을금고는 1972년 4월에 처음 자본금으로 5만원으로 설립하여 1985년도에는 32가구가 가입한 상태로 자산액이 6백만원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3년 10월에 지원금 8백만원과 자부담 5백만원을 들여 마을 앞에 교량 15m를 가설했으며, 1974년 3월 지원금 50만원과 자부담 20만원을 들여 마을앞 소화전을 정비 했다.

1991년 4월 사업비 2천8백80만원을 들여 민복계방개수를 위해 돌방대 495m를 설치했다. 1992년 4월 민복사업비 5천9백만원을 들여 소화전정비 239m, 마을안길포장 310m, 보 11m와 웅벽용수로 88m를 설치했다.

1993년 4월 민복개발사업비 5천8백50만원을 들여 호안공 400m와 교량 16m, 용수로 70m, 소형보 14m를 설치했다.

1994년 6월 민복개발사업비 1천9백40만원을 들여 마을길 100m(폭 4m)포장, L형측구 37m, 석축 134m를 설치했다.

1996년 7월 사업비 4천6백8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포장 6.95a과 취입보 180m, 용수로 80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산신제라 하여 매년 음력 3월 3일 주대미골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의 재앙을 막고 주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도가 1호와 신년생기가 제일 좋은 도수 4명을 선정하여 마을 주민 전 가구주의 운수 대통을 기원하는 뜻으로 도수들이 소지를 올려주며 제물을 제사가 끝난 후 전주민이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긴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하수요.

곤륜산 남백이 득 떨어져 금강산에다 귀봉을 하였구나.

금강산 남백이 득 떨어져(장지 장소명) 까치봉 남백이 득 떨어져 대지 명당이 여기로구나.

이산 쓴지 삼년만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나면 열녀로 구나.

이산 쓴지 삼년만에 압선급제하고.

이산 쓴지 삼년만에 부귀공명하오리다.

이산 쓴지 삼년만에 딸을 낳면 명마 낳고

이산 쓴지 삼년만에 딸을 나면 황제 낳고

이산 쓴지 삼년만에 소원성취 이루어지리다.

△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할미소 : 옛날에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 익사 직전 손녀가 달려와 구출하려 했으나 어린

손녀가 힘이 약해 함께 익사하였다고 하여 할미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물 깊이가 명주 두필의 길이였으나 현재는 1.7m이다.

• 화소 : 물 깊이는 1.5m이며, 둘레는 12m로 발방아 화 모양으로 돌이 흐르고 있다. 옛날에 큰부자가 살았고 여기서 방아를 찼었다고 하며 대문 세운 자리가 한쪽만 남아 있는데 바위에 45cm 가량 파여 있으며, 다른 한쪽은 없어졌다.

• 시낭나무 : 소나무 4주, 떡갈나무 1주로 수령이 약 300년이상 되었으며 오랜 옛날부터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다.

△ 속칭이름

- 푸대미굴 : 성황당 굴짜기를 말한다.
- 이내방굴 : 마을 남쪽에 위치한 굴짜기.
- 독지굴 :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독점이 있었다고 한다.
- 탁골 : 마을 서쪽에 위치한 굴짜기.
- 방개동(일명 화장굴) : 마을에서 가장 큰 굴짜기로 옛적에 이곳에 암자가 있었다고 하여 불리워지고 있다.
- 호랑바위 : 마을 동쪽에 있는 바위로 호랑이 입과 형상이 같다고 한다.
- 창터 : 옛적에 이곳에서 돌창, 돌칼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마을 주변에서 돌창, 돌창, 돌촉, 화살촉, 돌자구가 출토되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 논에 김을 펼 때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 심심하고 암암한다 질꾸나기 물려보세
 지엿구나 지엿구나 외논자리 지엿구나
 외논자리 매고 보며 준치반찬 잡수리라
 준치반찬 아니먹는 신귀곡산 중의살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워마라
 꽃이지면 이주지나 명년춘삼월 다시피네.
 지구질삼 잘하고 보면 간데쪽쪽 칭찬일세.

② 다바에타령

〈가사내용〉 다방다방 다방고야 네어디로 올고가나
 우리어머니 웅진 곳에 젓먹으려 올고가네
 젓을 먹고 돌아스니 어머니 간곳 없네
 초승달의 반달인데 동양삼국을 다 비치는데,
 이름은 두눈이 동구르신데 왜 임있는 곳을 못보느냐.

동자야 광채를 빌려다오 앉있는 곳을 바라보겠다.

◎ 마달리(馬達里)

△ 위치 : 동쪽에 바차진리와 대진리, 서쪽에 수동면, 남쪽에 화곡리, 그리고 북쪽에 영파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하늘이 가깝다고 하여 부르던 건달리(乾達里)와 원래 마직리(麻直里)라 부르던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의 남쪽에 꼭 밭이 누워있는 형태와 같은 산이 있어서 후에 마직리(馬直里)라 고쳐 부르게 되었고, 1915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두 마을의 '마(馬)'자와 '달(達)'자를 합해 마달리(馬達里)로 되었다.

옛날에는 이웃마을인 마차진리(麻次津里)에 마직리(麻直里)의 동쪽 일부가 유입 되었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51가구가 살고 있다.



마달리 마을전경

인구는 남자가 76명, 여자가 86명으로 모두 16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5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3가구, 경상도가 2가구, 충청도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11가구, 이씨가 8가구, 박씨가 6가구, 최씨가 3가구, 김씨가 4가구,申씨가 2가구이며, 기타 1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6가구,

상업이 2가구, 기타 13가구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49.9ha, 밭 19.1ha, 밭아 1.647ha 등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31대, 트랙터 10대, 콤바인 6개, 이앙기 19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284두, 돼지 138마리, 개 26마리, 산양 1마리 등을 32가구가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3년 11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5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대진에서 마달리까지 1987년 7월10일 개통돼 매일 4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51대, 냉장고 51대, 자가용 10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

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18가구, 유교가 12가구, 기독교 6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3년 9월 사업비 7천9백만원을 들여 세면벽돌조 스타브 59평(194.98㎡)의 현대식 건물로 다시 신축했다.

마을금고는 1975년 6월에 처음 자본금으로 50만원으로 설립하여 1985년도에는 48가구가 가입한 상태로 자산액이 1백78만원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9년 4월에 지원금 2백50만원과 자부담 1백50만원 등 총사업비 4백만원으로 마을입구에 20m의 교량을 가설했고, 1980년 6월에는 지원금 4백만원과 자부담 1백50만원을 들여 마을 중간에 위치한 소하천 360m를 정비했다.

1991년 3월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마달리 하수도 및 마을길 포장공사를 실시했고, 사업비 1천5백20만원을 들여 제방 들망대 280m를 축조했다.

또 1981년에는 마을주민이 단합하여 연인원 3,200명, 총공사비 350만원으로 길이 3,200m, 폭 5m의 농로확장 공사를 했다. 1983년에는 총 400만원을 들여 마을 입구 진입로 200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91년 12월 사업비 4천2백만원을 들여 산학소류지 34m를 보수했고, 1992년 4월 민복개발사업비 5천5백3만원을 들여 교량 11m, 마을길포장 514m, 하수도 119m, 소하천 132m를 정비했다.

1994년 7월 사업비 2억8백80만원을 들여 호안블럭 560m, 돌망대 240m, 회관포장 351㎡, 안길포장 100m, 도로개설 1.318km 등을 시행했다.

1995년 11월 사업비 5억1천3백60만원을 들여 마달구역 23.24ha에 20.64ha의 경지 정리작업을 시행했다. 1996년 5월 사업비 2천4백만원을 들여 도로수 11m를 보수했다.

1996년 7월 사업비 3천7백만원을 들여 소하천 150m와 하수도 108m를 정비했다.

1996년 11월 사업비 3천8백80만원을 들여 군도2호선 330m(폭8.5m)를 아스콘 포장했다.

△ **마을신앙** : 부락의 무궁한 발전과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부락공동으로 해마다 음력 보름(1월 15일)에 마을 성황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 **의식절차** : 해마다 음력 그믐이면 제사 전 날짜를 받고 도가집이 될 제주를 선정하여 제례에 따르는 음식을 간소하게 장만하고 (돼지머리, 백시두떡, 고기 등) 제사를 지내며 제사 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한해의 안녕을 기원한다.

• **성황제** : 마을 뒷산에 성황당을 지어 놓고 정성을 다해 도가집을 정하며 제주를 성황당에 바치 놓고 금줄을 친 후 제관되는 분은 목욕제게하고 새옷으로 단장하여 해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2회에 걸쳐 마을의 안녕을 빌던 제사로 6.25당시 성황당이 불타 없어지자 소나무만 19본 우기져 있는 산위 옛터에서 지금도 한해에 2번씩 마을의 안녕과 무사고를 빌며

제사를 모시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의 달맞이와 단오날 그네뛰기를 즐기고 있다.

△ 회다지 노래 : 선소리꾼은 없고 전해지는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가사내용〉 태백산맥이 내려와서 이코자리가 되고

달구 달구야, 이모 쓴지 3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달구 달구야 효자를 낳고

달구 달구야 딸을 낳으면 달구 달구야 열녀를 낳아라.

일가친척이 팔다래도 저승길이 멀다하더니 나혼자 간다.

나의 친구들아 친구를 버리고 나는 간다. 달구 달구야.

인제가면 인제오나 내년 춘삼월 제사때나 온다.

△ 바위 등의 전설

• 석불 : 마을회관에 석조여래좌상이 있는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고, 마을 청년들에 의해 절골(견달리 골짜기)에서 경운기로 운반되어 왔다고 전하며 현재는 몸체만 남아 있다.

• 빈대바위 : 마달리에서 화곡리 쪽으로 약 700m지점에 있는 바위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바위 틈에서 빈대가 나왔다고 하며 현재까지 빈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40명은 앉아서 놀 수 있는 큰 너래바위 이다.

△ 속칭이름

• 병 잠은골 : 견달리 북쪽의 500m길이가 되는 골짜기로, 지금부터 100여년전 구한말시대에 이전사대 할아버지의 노환으로 비명에 가시자 할머니께서 손수 드넉칼을 놓고 이 골짜기에서 몇날 며칠을 기다린 끝에 호랑이를 잡아 원수를 갚고 돌아 왔다는데서 현재까지 병 잠은골로 불리고 있다.

• 창대 : 마달리의 서남쪽으로 화곡리와의 경계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옛날 구한말시대에 이곳을 군사들이 창고로 사용했다고 한다.

• 여미네골 : 화곡리와의 경계지점으로 수동면 시내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는 길인데 고개 위의 넓은 곳에서 여민(呂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데서 유래되어 그 말이 사투리로 변하면서 여미네골이라 불려오고 있다.

△ 냉천현황

• 냉골하천 : 마달리앞 도랑으로 여름철에는 손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가워 상추도 씻기 힘들었다고 하나 얼마 전 새마을 농로확장시 매몰되어 없어졌다.

◎ 마차진리(馬次津里)

△ 위치 : 동쪽에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배봉리와 마달리, 남쪽에 대진리, 북쪽

에 명파리가 각각 이웃 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마차진리(麻次津里)는 고기(古記)에 마차진리(馬差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차진리 마을전경

옛날에 인접한 마직리(麻直里)와 한마음로 병합하였을 때에 '마(麻)'자를 넣어서 마차진리(麻次津里)라 고쳐졌다고 전하는데 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직리(麻直里)가 분리 되면서 동편 일부를 흡수하고 무송대(茂松臺)부근에 수달리(水達里)로 편입하였다고 한다.

마을 남쪽에 있는 무송대(茂松臺)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

면 「바닷가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으니 전에는 송도(松島)라고 하였으며 송림이 무성하고 모래길(沙路)로 육지와 이어지고 바닷물이 끓으면 섬에 들어갈 수 없으며 파도가 치면 모래가 스치는 소리가 난다(沙鳴). 무송부원군 윤자운(茂松府院君 尹子雲)이 관동지방(關東地方)을 순시 할때 이 섬에 머물러 갔다고 하여서 그 후 무송(茂松臺)라고 이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섬 주위의 바위에 자시(子時)에 자연적으로 움직여 갈라진다는 자마석(子磨石)이 있다. 평시에 무송정(茂松亭) 또는 무선정(舞仙亭)이라고도 부르는데 뱀이 없다고 하며 주위에는 잡어, 해조류와 방게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4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64명, 여자가 70명으로 모두 134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5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4가구,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각 1가구, 기타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朴씨가 8가구, 俞씨가 7가구, 李씨가 5가구, 鄭씨가 4가구, 崔씨와 柳씨, 尹씨가 각각 2가구씩이며, 기타 12가구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4가구, 어업이 4가구, 상업이 2가구, 건축업이 1가구, 기타 20가구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3.6ha, 밭 17.7ha, 임야 185ha 등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6대, 트랙터 1대, 콤바인 1개, 이앙기 3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사육 현황으로는 한우 15두, 돼지 15마리, 개 4마리 등을 4가구에서 각각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 11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4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9년 9월에 개통돼 현재 매일 108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어 교통은 비교적 편리한 편이다.

문화시설로는 TV 42대, 냉장고 42대, 자가용 3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8가구, 유교가 8가구, 기독교 3가구, 천주교 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7년에 세멘벽돌조 스라브 17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9년 4월에 지원금 4백만원과 자부담 2백만원을 들여 소하천 200m을 정비 했으며, 또한 1백20만원을 들여 농로 100m를 개설했다.

1992년 11월 사업비 4백40만원을 들여 홍벽 30m(높이 3.5m)를 설치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2백4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05m를 포장했다.

1995년 3월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260m포장과 교량 3개소를 가설했다.

1996년 6월 사업비 3천8백50만원을 들여 마을길포장 500m, 맨홀 1개소, 배수관 16m를 시설했다.

△ **마을신앙** : 마을 치성이라 하여 매년 음력 9월 9일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는데 마을의 재앙을 막고 주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옛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 마을명소현황

• 바치진리 봉수지(麻次津里烽燧地) : 대진에서 7번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평과리로 넘어가는 굽고개의 우측(동편) 해발 133m봉황봉 산 정상에 위치한다. 해안에 면해 있고 해발 표고도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이어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30년된 아카시아와 낙엽수들이 우거져 있어 유적 전체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봉수대는 산 정상부를 삭평한 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조는 정상을 중심으로 봉수대와 봉수대 바깥으로 1차 석축 기단을 두르고 석축 기단 바깥으로 방화벽의 용도로 사용된 토루가 둘러져 있다. 따라서 토루(1단)+석축(1단)+봉황대 기단으로 모두 3단의 전형적인 봉수대의 구조를 띠고 있다. 봉화대의 현 잔존 높이는 약 2.2m, 윗부분의 지름은 약 6m정도이고, 봉화대 기단 둘레는 약 52m이다. 봉화대 기단과 석의 거리는 8.4m, 그 둘레는 약 90m정도로 추정된다. 또 석축 기단에서 바깥의 토루까지의 거리는 9~10m정도이다. 추조하면서 사용된 석재는 주로 자연석(10×20×, 20×50cm)을 이용하였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바치진리부락에 서북 약사백간(727m)의 산정에 있을. 주위 약이십간(36m) 석층의 주에 토루가 있고 불완전'이라 하였고, <<문화유적총람(상)>>에는 '굽고개 봉화대'라고 불리며 석축의 길이 약 6m, 높이 60cm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와 그 이

후의 여러 지리지에는 이 봉수지의 명칭을 술산봉수(戌山烽燧)라 밝히고 있고, 남쪽으로 13km거리인 정양산봉수(正陽山烽燧-거전읍 반암리 소재)와 북쪽 고성군의 구장천(仇蔣遷) 봉수 사이에서 신호전달을 하였음을 밝혀 주고 있다. 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봉수지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서 토기편과 와편들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병들이 주거시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상;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명파리(明波里)

△ 위치 : 동쪽에 동해를 바라보고, 서쪽의 수동면, 남쪽의 마차진리, 마달리, 북쪽의 점장리(鎭藏里)와 각각 이웃 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민통선 마을로 동해를 바라보아 동해의 맑은 물과 백사장을 뵈 아름다운 경관



명파리 마을전경

때문에 명파리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광산천(鑛山川)과 명파천(明波川)이 흘러 마을이 형성되었기에 전답이 비옥하고 각종 어족이 풍부하다.

또한 속칭 광산골에는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해 광산이 개발되어 금, 은을 생산하다가 6.25로 중단되었던 것을 1970년 고명광산이 들어와 한때는 성업을 이뤘으나 지금은 폐광되었다. 그 후 대립광업이 광맥을 찾았으나 현재

는 중단된 상태이다. 고명광산의 은(銀)은 전국에서 순도 2위를 자랑하는 우수한 지하자원으로 각광을 받았었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6km지점에는 통일전망대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기도 하지만 민통의 취약점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으나 1995년 6월에 민통선이 광산천 북쪽으로 이전함에 따라 마을내 도로변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식당 등 새로운 먹거리촌이 형성돼 찾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4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238명, 여자가 240명으로 모두 478명 이다.

출신도면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28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 4가구, 이북출신 3가구, 경

기도와 전라도, 충청도가 각각 2가구씩, 기타 3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송씨가 41가구, 이씨가 20가구, 박씨가 11가구, 최씨와尹씨가 각각 7가구씩, 趙씨가 6가구, 安씨가 5가구, 기타 4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03가구, 상업이 16가구, 기타 25가구 등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47ha, 밭 35.3ha, 임야 707ha 등으로 비교적 경지가 넓고 민통선의 출입영농을 하는 가구가 많다.

농기계는 경운기 78대, 트랙터 13대, 콤바인 16개, 이앙기 49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139두, 돼지 955두, 개 10마리 등을 48가구에서 각각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 토종돼지 사육 시범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기는 197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144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9년 7월에 개통돼 하루 4회씩 왕복운행 했으나 1984년부터 8회씩 증회하여 운행하고 있고 최근 동일전망대 래방객이 늘어나 교통이 혼잡한 편이다.

문화시설로는 TV 144대, 냉장고 144대, 자가용 38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유교가 45가구, 기독교가 36가구, 불교가 12가구, 천주교 3가구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0년에 4백만원의 사업비로 세면벽돌조 스라브 46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1982년 3월에 처음 자본금 15만원으로 마을공동구판장을 개설하여 1985년 1백27만원에 이르렀으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금고 역시 처음 자본금 4천5백원으로 마을 공동구판장을 개설하여 1985년에 135가구가 가입해 1백59만원에 이르렀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4년 12월과 1985년 6월에 마을 서북쪽의 소하천을 공사구간 180m를 각각 정비했다. 이보다 앞서 1983년 4월에는 총소요액 5천만원을 들여 7번 국도가 되는 마을안길 1,000m를 포장했다.

1991년 4월 사업비 2천6백80만원을 들여 하수도 147m, 용수로 110m, 마을안길 포장 923m를 시공했다.

1991년 4월 7천4백50만원을 들여 명파천 세방 돌망대 330m, 보막기 65.8m, 용수로 223m를 시설했고, 동년 5월 사업비 3천5백20만원을 들여 마을공동창고 50평규모의 철근콘

크리트 스라브를 신축했다.

1992년 4월 민복개발사업비 7천2백60만원을 들여 마을길포장 580m(폭3.5m)과 153m(폭3m), 하수도 복개 210m, 용벽설치 30m, 소화천 200m를 정비했다.

1992년 10월 사업비 1천1백만70만원을 들여 산사태위험지구 용벽 30m(높이 3.5m)를 설치했다. 1993년 5월 민복개발사업비 1억2천9백40만원을 들여 교량 40m(폭6m), 마을길 3.37a, 호안공사 140m를 설치했다. 1994년 7월 민복개발사업비 3천7백60만원을 들여 도로 240m(폭4 m)포장, 용벽 51m를 설치했다.

1994년 10월 사업비 2억3천8백만원을 들여 민통선출입검문소를 배봉리 입구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1996년 4월 사업비 4천3백20만원을 들여 취입보 49m를 설치했고, 동년 7월 1억6천7백만원을 들여 해수욕장 진입로개설, 포장 465m, 주차장 포장 63.2a, 경계석 260m를 시설했다.

△ **마을신앙** : 음력 정월에 암골에서 지내는 산신제가 있다.

옛날 마을이 이루어질때 자연발생한 고목(소나무)이 없어지고 약 150년전 새로 이식된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전설이 있다.

• 의식절차 : 제사전 날짜를 받고 제주를 선정하여 제례에 따르는 음식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내며 제사 후 마을 전주민이 모여 장만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마을 세시풍속** : 양력 6월 중순경 모내기끝 끝내고 그 품앗이(질)사람들끼리 모여 질놀이름 하며 여름칠(7월 하순경)에는 친럼을 한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어~ 아뵤, 문주방이 놀다해도 나뵤어갈 짚은 닳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심한 산천으로 나는 간다.

일가친척 잘 있거라 친구들도 잘있거라.

금강산이 뵤다해도 병당에도 우수하다

어허어허 님차

△ **바위, 나무 등의 전설, 명소현황**

• 말무덤 : 옛날 일제시대에 마을의 서북쪽에서 장수가 태어날 조짐이 있었는데 이장수가 나타나면 마을이 망한다 하여 장수감으로 태어난 아이를 억지로 죽이니 장수를 태운 용마(龍馬)가 나타났다가 따라 죽은 것을 마을에서 잘 물어 주었다고 한다.

지금 이 무덤 주위의 전달을 말무덤거리라 하며 현재는 형태만 있고 주변은 논으로 되어 있다. 상석의 측면에 들어가면 각자를 하였으나 깨어졌고 묘비와 묘앞의 문인석은 없어서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의 민묘로 보인다.

• 부채술 : 현재 7번 국도옆 명파초등학교 담 앞에 위치한 1쌍의 소나무는 약 300년전에

이부락의 장자인 부자집 김유근(金有根)이라는 사람이 심은 것으로 그 형상이 마치 부채처럼 생겼다고 하여 옛부터 부채술로 명명 되었으나 약 7년전 우측소나무가 고사(枯死)되어 현재 한 그루만이 살아 있다.

△ 속칭이름

- 광산골 : 마을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부터 금·은 광석이 많아 광산골이라고 한다.
- 안골 : 마을 북쪽의 골짜기로 옛날에 성을 쌓고 원님이 살던 곳이라 전한다.
- 갈마평 : 마을 북쪽의 산이 말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앞이 넓은 평야로 되어 있어 갈마평이라 한다.
- 쌍학골 : 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말엽 표지를 아전시키기 위해 묘를 파헤치니 학 2마리가 날아 올랐다고 하여 이곳을 쌍학골로 부른다.
- 애기난골 : 마을 서쪽의 골짜기로 옛날 병자호란때 피난을 했던 아주머니가 이곳에서 아기를 낳았고 피를 짜내어 마을 입구인 이곳에서 오랑캐가 돌아 가도록 하였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 고분군 : 직경 3.6m의 고분 5기가 있는데 고려시대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 조제암터 : 마을 서북쪽 4km 떨어진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조제암은 건봉사의 말사로서 6.25동란때 전소되어 현재 그터만 남아 있다.
- 권익강 선장비(權益降善政碑) : 조선 숙종 37년(1711) 고성 군수로 부임한 권익강이 민정을 잘 보살핀 공을 기리어 명파역에 세웠는데 크기는 높이 91cm, 폭 39cm, 두께 14cm로 구 명파초등학교 산비탈에 있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동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명파리 문관석(明波里文官石) : 7번 국도를 따라 북고개를 넘어 명파리 마을의 관문인 명파 1교를 건너기 전 동편 선선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다. 이 문인상의 원래의 소재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전쟁 이후 명파리가 민통선 북쪽 마을로 개척되면서 동시에 세워졌던 옛 명파초등학교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농협창고 건설 등 택지공사에 의해 개울가로 방치되었다가 현재의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다 한다. 문관석은 크기 104cm의 화강암재로 옷주름은 모두 음각선으로 표현하였으며, 흉을 잡고 있는 두손의 부분은 명확치 못하다. 얼굴부분에서는 귀가 무치상과 같이 목부분까지 길게 늘었고, 눈과 코는 양각, 입은 음각선으로 얇게 표현하였다. 관모도 간단히 음각선으로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 관료로 역임했던 문관의 표소에 있던 석상으로 추정된다.

• 부호군 황성일묘(副護軍黃聖一墓) : 명파리 마을에서 통일전망대 쪽으로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 보면 '명파3교'라는 콘크리트 다리가 나오는데, 이 다리에서 동편(해안쪽) 120m거리 야산(지도상에는 소봉바위로 표기되어 있는 남쪽산) 서쪽 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묘소 앞에는 장대석으로 된 기단(940m)이 있고, 좌우에는 문인석(110cm)과 1기의 방부석(146cm)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관계로 잡목으로 뒤덮여 있어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다. 전면에는 혼유석과 복련과 안장이 조식된 비대좌위에 파손된 채로 서 있는 묘표(54cm×38cm×14cm)가 있고, 3면에 각자되어 있는 상석(111cm×76cm×43cm)과 향로석(28cm×23cm×22cm)이 놓여 있지만 다른 석물들과 같이 한국전쟁 때의 상흔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새로 발견된 묘표 중간부분의 석재 전면에는 “부호군황공지묘(副護軍黃公之墓)”라 되어 있고, 상석에는 최장자인 부호군 황성일의 가계, 약력, 재산현황 등이 3면에 새겨져 있다. 석물의 재질은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조각 수법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현내면 명파리 토목국소유 명파(明波)리 부락의 남방약 십삼정(南方約十三町)(1.42km)곡간에 있음.

척석 직경 약 2간(3m)1기 불완전”이라 하였고, 상동서에 “현내면 명파리 국유 ‘명파리 부락의 서남방 팔정(八町)(872m)곡간에 있음. 척석 직경 약 이간(二間)(3m) 오기 불완전(五基不完全)”이라 하였다. <<문화유적총람(삼)>>에는 “일명 장군묘 또는 말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직경 4m, 높이 3m의 고분으로 옛이야기로 전해오는 전설로는 명파리에 장수가 탄생하자 역적으로 몰아 죽었는데 함께 나타난 용마(龍馬)도 그 자리에서 죽어 묻은 무덤이라는 전설이 있다. 상석(床石)의 측면에 돌아가면서 각자(刻字)를 하였으며, 묘비(墓碑)는 깨어져 없어져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다. 묘전의 문인석등으로 보아서는 조선시대의 민묘로 추정된다”라고 하였고, 상동서에 “고성명파리 고분 직경 약 3.6m의 고분 5기가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황효자각(黃孝子閣) : 조선시대 중엽 황효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를 준비하여 어느덧 과거보러 갈 준비를 하던 중 부친이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과거를 단념하고 부친의 간호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부친은 아들을 꾸짖어 과거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였다. 이에 황효자는 과거길에 올랐으나 과거날을 이틀 앞두고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과거에도 또 한번 낙방하여 서둘러 귀가하였으나 부친의 시신은 몹시 부패할 지경이 되었다. 이에 황효자는 기름으로 자신의 열 손가락에 풀을 지르자 사망하였던 아버지가 소생하였다가 3일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로서 비각이 건립되었으나 현재는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이라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고성군, 1985, <<고성군지>> ;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배봉리(培峰里)

△ 위치 : 동쪽으로 동해와 접해 있고, 남쪽에 마달리, 그리고 북쪽에 평과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배봉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신라시대에 불화를 올려 통신을 전하던 불화봉(烽火峰) 또는 돛대봉이라 부르는 뽕죽한 봉우리 아래에 마을이 위치하였다고 하여 배봉리(培峰里)라고 불렀다. 인근 평과리와 함께 민통선 북방의 출입영농을 하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2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9명, 여자 34명으로

모두 7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1가구가 가장 많으며, 경상도가 1가구가 있다.

가구별 성씨분포현황은朴씨가 7가구, 김씨가 4가구,李씨와 咸씨가 각각 3가구, 손씨가 2가구, 기타 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6가구, 상업이 1가구, 기타 5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3.4ha, 밭 9.4ha, 임야 44.4ha 등이다.

농기구는 경운기 11대, 트랙터 1대, 콤팩트 1개, 이앙기 7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는 한우 43두, 돼지 14두, 개 21마리, 닭 27수, 꿀벌 3마리, 산양 2마리 등을 31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 보급이 늘어 2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22대, 냉장고 22대, 자가용 2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별 가구현황은 불교가 8가구, 유교각 6가구, 기독교 3가구, 천주교 2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5월에 총사업비 1백80만원을 들여 전경 15평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1985년의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3천7백92만원을 들여 720m의 마을진입로를

시멘트로 포장했고, 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48m의 교량을 가설했다.

1991년 4월 사업비 4천1백80만원을 들여 제방 돌망태 326m와 보막기 45m를 시설했다.

1992년 4월 민복개발사업비 8천2백60만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 480m, 보 60m를 설치했다. 1993년 4월 민복개발사업비 9천4백50만원을 들여 호안공 720m(폭 6m), 마을길 200m(폭 5m), 보 28m(폭 4m)를 설치했다.

1994년 6월 민복개발사업비 5천9백60만원을 들여 도로 299m(폭 5m)포장, 옹벽 92m 설치했다.

1996년 8월 사업비 1억6천5백70만원을 들여 도로포장 21.56a과 상수도 650m, 하수도 656m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갖추었고, 동년 8월 사업비 8백90만원을 들여 옹벽 20m를 설치했다.

1996년 10월 사업비 4천8백만원을 들여 소규모호수 정화조 24.95㎡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해마다 양력 2월 3일에 성황당에서 온 부락이 평안하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마을이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 의식절차 : 주, 과, 포, 배, 편 등을 정성껏 차려놓고 간단히 의식을 거행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명절과 정월 대보름 그리고 한가위 날을 온 마을 주민이 함께 즐긴다.

△ 속칭이름

• 지씨덕골 :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마을이 생겨 난때 아랫골, 윗골에 모두 지씨가 살았었다고 하여 지씨덕골이라 부른다.

• 호방골 :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 고등골 :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가 똑바로 보인다고 한다.

• 뚝골 : 마을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꼭대밭으로 되어있다.

• 명수골 : 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중의 하나(夢水).

◎ 현내면 주민 미거주마을 유래(縣內面 住民 未居住마을 由來)

○ 저진리(猪津里)

마을앞 해변에 섬이 있는데 옛부터 이 섬에는 화살 만드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했다. 섬이 좁아 재지가 일드려 있는 형상이라 저도(猪島)라고 부르며, 1945년까지는 동해 북부선 철도의 저진역(猪津驛)이 있었다.

○ 사천리(泗川里)

고기(古記)에 의하면 사천리(蛇川里)라 불렀고 중국 황나라의 사수(泗水)의 지형과 흡사하다고 하며 수양과 학문을 탐구하는 곳으로서 적임지라 하여 사천리(泗川里)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 사천소류지 : 사천리 100번지 일대로 유역면적 3ha, 물리면적 20ha, 제방연장이 30m 등으로 일제시대 축조되었으며 1986년 일부 개보수 됐다.

○ 검장리(劍藏里)

옛날에 검장리(檢長里)라 불렀으며, 이 마을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마을 생김새가 칼을 쏘는 형상과 같다하여 1915년 검장리(劍藏里)라 부르게 되었다.

○ 명호리(明湖里)

명호리는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으나 6.25동란 이후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간직된 휴전선이 있고 지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출입금지구역이 있는 그곳에 통일전망대가 1983년 7월 15일 세워졌다.

이곳은 1982년 대통령이 716op에 국민안보교육장을 개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총공사비 3억8천여만원을 들여 교육관실 52평, 전망대 52평등 모두 119평의 건물을 짓고 13.5km포장 공사를 완료해 심볼관을 비롯해 3개의 전시실과 방소시설을 갖추고 개관됐다. 이곳에는 높이 187cm, 지름 125cm, 무게 1,875kg(500칸), 최대타중거리 4km의 통일병종이 1983년 12월 33일 완공되었다. 높이 39cm(구약 39권), 전등줄 27줄(신약 27권), 전등수 1,500개(신·구약 성경 총강수)가 설치된 진진십자철탑도 같은 시기에 완공되었다. 또한 전망대 동편의 미륵불상과 파리아 성상도 함께 있어 연간 150여만명의 실향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해금강과 금강산을 바라보며 통일 염원 하고 있다.